EAST ASIAN [illegible] LIBRARY
UNIVERSITY OF [illegible]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22 1982년1월15일(금)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January 1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김 명 규
편 집 인：이 석 현
광 고 부 장：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윤 방 현

주택사정 악화일로
"렌트통제대신 주거보조비정책 쓰라"
토론토의 만5천세대가 주거문제로 곤란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의 주택사정은 새해들어 더욱 심각해져 셋방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 졌다고 주택 전문가들이 말했다. 토론토 주택협회의 요청으로 주택사정을 조사한 경제학자 클레이톤씨는 정부가 아파트업자에게 특별금리 보상제도, 세금감면등을 통해 주택건설장려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클레이톤씨는 또 정부가 현재 집주인에 적용하고있는통제제도를 없애는 대신 영세민들에 대한 주거보조 정책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통제를 없애면 랜트비가 올라가나 주거보조비가 인상분을 상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거보조비 정책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있는 반관반민 아파트건설정책을 폐지하고, 그대신 불구자나 노년층을위한 아파트 건설비에 전액 투자토록 할 수 있다고 조사결과에서 밝혔다.

현재의 주택공급문제는 세계2차대전 이후 최 대의 위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근 랜트통제와 높은금리는 주택업자들을 위축, 아파트및 주택건설등을 거의 중단시켰다.

지난11월 예산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연립주택장려정책도 주택경비를 되살리는 방안이다. 이 정책은 연립주택을 건설하는업자에 세금을 감혜주는 제도이다.

82년중 토론토 시내에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필요로하는 가구는 약 1만5천 세대이다. 그러나 이 세대들은 대부분 현재의 랜트값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층이다.

독립주택 건설은 지난2년간 토론토 지역에서 활발한 경기를 보여, 거의 수요가 충당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반면 셋방을 필요로하는 수요는 약2만2천 세대이나 새해의 계획은 6천세대분 뿐이다.

농장파산율 저하
은행상대 싸운 덕

지난 12월중 농장파산률이 떨어진 이유는 농장주가 은행들을 상대로 싸운 덕분이라고 온타리오 농장주 대표들은 말했다.

11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지난12월에 온타리오주에서는 오직 한개의 농장만이 자진 파산신고를했다. 80년 같은 기간에는140개, 그리고 81년에는 모두 261개의 농장이 파산, 년간 15%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같이 지난 년말들어농장파산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은행들이 농부들과 맞싸움으로서 국민의 비난을 받는것을 피하려고 애쓴때문이라고 랄프·배리 농업협회장이 말했다.

배리씨는 지난 11월 포트에이진 근처에서 농부백여명이 트랙터와 농기구등을 몰고 한 은행을 포위, 시위데모를 벌여 60일이상의 지불연기조치를 받은사건을 지적했다.

81년동안 많은 농부들이 쇠고기, 돼지고기등 농산품값은 아직 싼데도 고금리는 계속돼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한농부는"농장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들과투쟁을 벌여 지불연기, 값싼 이자등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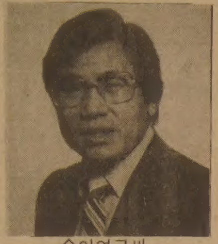
세계대회개최
대한탁구협회

(서울 13일=연합) 대한탁구협회는 87년에 열리는 제39회 세계탁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동협회 최원석 회장이 12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최회장은 국제탁구연맹에 이미 개최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최종결정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동연맹 총회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87년 세계탁구대회 개최권을 두고 인도, 영국, 헝가리등이 경합을 벌이고있으나 최씨는 서울의 개최확률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새회장 이영구씨
해밀톤 한인회


◇이영구씨

(해밀톤)해밀톤한인회는 지난 26일 회장선거에서이영구씨를 회장으로 선출, 이어 아래 임원들을 82년도 임원으로 선임했다.

회장：이영구
부회장：조성학
총무：이영재/기획：장무웅/문화：차동열/섭외：김태영/부녀：김수진/버링톤지부장：이대우/동부지부장：정원규/서부지부장：김차원/마운틴지부장：임재량.

한편 고문및 자문위원으로는 아래 인사들이 위촉됐다.

고문：최태호
자문위원：윤치복, 이창희, 신경순, 차인규, 조용구.

여성연방대법관 등장할듯
온주의 버타·윌슨판사 유력

◇버타·윌슨 판사

(오타와)내달있을 연방대법원판사 임명에서 과연캐나다 최초의 여성대법관이 탄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법조계의 관심거리가되고있다.

관계자들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작년에 여성대법원 판사1명을 임명한 이후 트루도수상도 많은압력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법관임명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있는 변호사및 법학교수들은 여성대법관 후보로 75년 최초로 주고등법원 여성판사로 임명된온타리오주의 버타·윌슨(58)을 첫손을 꼽고있다.

버타·윌슨외에 전국적으로 몇명의 후보가 대두되고 있는데, 관측통들은 현직 여성변호사들이 정년퇴직할 경우 후보의 절대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대법관 임명설이 오르내리기 시작한것은 판사선정단이 이미 연방대법원청사에 여성전용 화장실과 탈의실 설치문제를 검토했고, 지난번 헌법문제 판결시 대법원판사 14명이 모두 남성이었던데 대해 여성단체들로부터 말이 많았던데 기인한다.

이번 대[illegible] 임명에서는 지역적 안배이유로 온타리오주 출신이 유력시된다.

기차, 버스등 요금
65세이상에 50% 할인

(서울 13일=연합) 한국교통부는 13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현행 공공교통기관 요금의 50% 할인을 오는 2월1일부터 적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처에 적용되는공공교통기관은 시내, 시외버스, 기차및 페리보트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정부의 조처는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법안의 일환이다. 현재 65세이상의 노인은 150만명 으로 전 인구의 3.9%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혜택을 이미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실시해 왔으나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기관인 시내버스 할인요금제도는 이에서 제외됐었다.

한국정부는 82년을「노인의 해」로 선정,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을유지하기 위한 「노인헌장」을 작성하고 있다.

◇나이아가라의 말굽폭포에서 날리는 눈보라와 맹추위로 나무들이 얼음옷을 입은 모습을 12일 나이아가라의 염소섬(Goat Island)을 들른 관광객 빌씨부자와 친구 러셀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말굽폭포(Horse Shoe Falls)는 흔히 말하는 캐나다측폭포로 말굽처럼 굽어있고 염소섬은 염소모양을한 미국영토로 이섬을 가운데로해서 두개의 폭포가 놓여있다.

—일부지역 신문배달 지연에 대해—

희망찬 새해에 독자 여러분위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성탄과 연말 연시를 기해 일부지역에 신문배달이 순조롭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로서는 매일 신문을 인쇄하는 즉시 발송하오나 우체국의 업무량 급증 사정으로 부득이 배달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을 제때에 못받으시는 독자들께서는 이같은 사정을 이해하셔서 우선 우편배달부, 또는 거주지 우체국 수퍼바이저에게 항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배달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참아주시고,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한국일보사 독자부 드림

※온타리오지역 배달지연 항의전화는 369−2338
※기타지역은 지역별 중앙우체국의 Customer Service (카스토마·서비스)로 전화하면 됩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illegible]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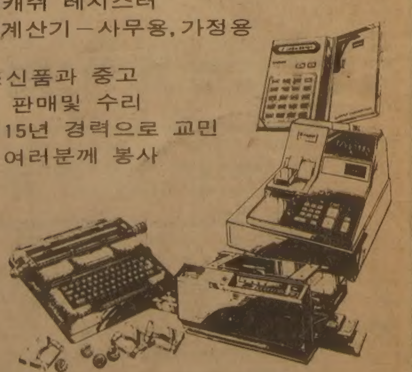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南國酒家
SOUTH CHINATOWN RESTAURANT
* 전통적인 칸토니스 중국음식
* 해산물(게,)
* 팔진두부
* 각종국수
* 천엽
* 뱅쿠엘 써비스
OPEN HOUR
월~목 11：30~11：00 P.M
금 11：30~2：00 A.M
토 1：00P.M~2：00A.M
일 1：00P.M~10：00P.M
주소：131 A DUNDAS W.
(던다스×유니버시티)
전화：977−3452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 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혹한에 이어 폭설

수도공과 토잉·카는 대목만나

5일째 계속되던 폭설과 강추위가 차츰 풀리면서12일 밤새 토론토시내에는근 3인치의 눈이 내려 곳곳이 교통이 막혔고 제설차가 여기저기 바삐 돌아다니는 시내곳곳은 눈과 소금이 범벅이 돼 운전하기에 미끄러웠다.

이번 추위와 폭설로 가장 바빴던 사람들은 상하수도수리업자(Plumber)들과 토잉트럭 운전사들이었다.

12일 토론토측후소는 이번 추위와 함께 온 강풍의 중심권은 퀘벡남단으로 옮았으나 폭설주의보는 계속된다고 발표했다.

토론토소방서에 의하면 10일밤 하루에만 60건 이상의 수도관파열신고가 있었고 토론토하이드로 회사는 전력중단과 수도 동결신고로 전화통이 불이 났었다고 말했다.

한편 추위와 폭설로 시동이 안되는등 고장난 차들 때문에 토잉트럭회사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12일 한회사의 전화교환수는 평소보다 2배이상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다.

한국일보
533-2361

서울국제박람회

교포무역업체 참가바라

(서울)

정부는 새시대 무역입국의 구현과 제2의 경제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사상최대규모의 「82 서울국제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있다.

「내일의 번영을 위한 광장」이란 슬로건의 이번 국제박람회는 1982년 9월24일부터 10월18일까지 총25일간 개최된다.

교포무역업체들의 참가도 권장하는 82서울국제박람회는 80년대중반 5백억수출을 향하여 무역한국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국제무역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박람회장소는 서울에 있는 한국종합전시장및 인근부지이며 국제관은 약2만평, 국내관 약4만평등, 총6만평의 대지에 세워진다.

정부각부처와 경제단체들이 후원하고 있는 서울국제박람회는 참가대상이 제조업체, 수출업체, 해운업체및 유관업체이며 또는 특허및 아이디어소지업체나 개인, 항공회사, 여행사등 관광업체 그리고 무역증진에 도움이된다고 인정되는 업체, 단체또는 개인이 된다.

「메시아」공연 $4천 흑자

한인합창단 새해계획도 발표

토론토한인합창단(단장 한기철)은 8일밤 쉐라톤·트라이엄프·호텔에서「'82 발전하는 합창단 모임」을 갖고 합창단에 공로가 큰 인사들을 표창하고, 새해의 계획을 발표했다.

박희민 한인장로교회 목사의 설교에 이어 합창단 총무인 이건길씨가 지난해 12월4일 메씨홀에서 있은 메씨아대공연때 나온 4천달러의 수익금중 3백달러는 맹인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임지휘자 박재훈 박사는 인사말에서 지금까지의 공연중 80년 2월 연합교회에서 가진 자선음악회가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음악회의 수익금 $850는 세계선명회를 통해 기아민 구제를 위해 쓰도록 했었다.

합창단은 새해 공연스케줄로 4,5월중 아프리카기아민 구제기금을 위한 자선음악회, 5월16일 시카고연주여행, 12월초 메시홀에서 노스욕심포니와 제2회 메시아대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단복을 증정한 강창흡씨, 임명락씨를 비롯, 김계남, 김창호, 김승웅, 고희경, 최춘자, 주수자씨등에 대한 표창및 감사선물 증정에 이어 문남귀씨 진행의 싱얼롱등 여흥이 있었다.

▲미국프로테니스경기에서 한국의 이덕희선수가 최초로 우승했다。테니스계의 「집시」를 자처하는 이덕희선수는 남아프리카 이본느·베르마크를 꺾고 영예의 우승을 차지。

이덕희 단식우승

프로테니스, 한국선수로처음

〈포트·마이어스(플로리다)-UPI〉 미국 프로테니스경기에서 한국선수가 최초로 우승했다.

한국의 이덕희선수는 지난10일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에서 개최된 에이번·남서부플로리다 토너먼트에서 여자단식부에서 우승을 획득 상금5천달러를 받았다.

이양은 이날 남아연방의 이본느·베르마크선수와 결승전을 벌여 세트스코어 6-0, 6-3으로 일방적게임으로 승리했다.

한국선수가 미프로경기에서 우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선수는 지난8일 남아연방의 이본느·베르마크, 로살린·패어뱅크, 레아·안토노폴리스양과 함께 4강에 오른 유일한 동양선수로 각광을 모았었다.

〈소 론〉

나라의 노래(国歌)

안병원

◇안병원씨

교가(校歌), 시가(市歌), 사가(社歌)와 같이 한 집단의 예식적 행사나 그 집단의 결속을 목적으로 노래를 갖는다. 그런 종류중에서 최대의 곡이 국가(国歌)이다.

「국가(国歌)라 함은 한 나라의 국민, 또는 민족을 상징하고, 또 통일적 감동을 표현하는 가곡으로 국가적 축제나 행사등 공공의식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세계백과사전」에 적혀 있다.

수일전 〈주간한국〉에서 새 국가 제정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펴고 있다는 신년 특집기사(1981년1월5일자)를 보았다.

해외에 나와있는 우리로서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불리우고 있는 「애국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애국가」와 「국가」를 병행할 수 있는가? 몇몇 분의 문의를 받고 아는대로 교포들의 궁금증을풀어볼까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국가(노래)는 어떻게 지어져 채택된 것인가?

어떤 나라는 가사없이곡연주만을 듣는 「국가」(나라노래)도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곡(国曲)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라)의 국가(나라노래)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살펴보면 국왕 제도가 혁명으로 새 정권으로 바뀐 다음 「국가」를 변경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식민지에서 독립국이 된 신생국가, 또한 그나라 정권이 변동된 후 안정이 되면 새 「국가」를 제정하는 예도 있다.

제2차대전후 패전국인 독일, 이탈리아는 당연한 듯이 새 「국가」를 제정하였다. 일본도 패전후 비민족적이고 군부전제 시대의 인상이 농후하다 하여 폐지론이 있었으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변경이 많은 나라가 터키라고 한다. 또한 세번 변경된 나라는 이탈리아이다. 최초로 1813년 「국왕행진곡」, 다음 「파시스트의 노래」, 세번째가 1946년 이탈리아공화국의 확립과 더불어 노바르작곡의 「마멜리 찬가」가국가로서 제정되었다.

소련도 역시"최초의 것은 차이코프스키의 「1811년 서곡」중에도 사용한 바있는 「신이여, 황제를 보호하소서」, 1917년 혁명후 「인터내셔날」이 국가로 불리우고, 제2차대전후 「스타린의 노래」를 국가로 제정, 지금은 「스타린」이라는 가사대신 「레닝」이라고 정정되고 있다.

영국은 1745년 런던의한 극장에서 국왕 죠지2세를 찬양하는 「God Save the King」으로 만들어져, 지금은 King을 Queen으로 불리운다. 이것은 빅토리아여왕시대에 공식적으로 되었다고 한다. 군주찬미국가로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 결과 1825년에 나라의 노래로서 굳어졌다.

미국국가는Star Sparkled Banner—오! 새벽 햇빛에 성조기가 빛나도다··」로 시작된다. 1814년 대영전쟁중 포로가 된 F.S.KEY가 감금되어 있는 배의 갑판에서 욱지위에 휘날리는 성조기를 보고 이 감동을 애국의 정열로 작사하여 그 당시 미국에서 애창되던 영국의 「축배의 노래」 곡에 붙여 노래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해져 1931년에 국가로 제정되었다.

이곳 캐나다는 공식적으로는 영국국가가 불리어지나 「국민가」의 의미로서는 라베레 작곡, "루체"작의 프랑스어에 의한 시를 후에 "와이어"가 영어로 작사한 「오! 캐나다」(오! 캐나다, 우리의 조상의 대지여··)가 불리우고 있다.

세계의 여러 여러 나라들이 국민이 즐겨 부르는 곡이 전해져 국가로 제정되고, 또 다른 애국가도가 지고 있다.

브라질은 1831년 「국가」(나라노래)를 공모에 의해서 제정한 나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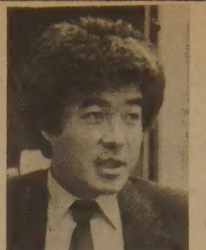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16소절의 안익태씨 작곡, 윤치호씨 작사로 해방후지금까지 국가적으로 불리어졌고, 이것은 영원히 우리 민족의 노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발전과 경제성장으로세계 선진국 대열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새 시대에 맞는 한 민족의 긍지와 자연의 아름다움을(나타내는 명랑하고 예술적인 새로운 「국가」(나라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전 숙내교수)

경제생활과 우리

투자상담 ‖ 강상욱씨 제공(메릴린치 회사) ②



◇강상욱씨

투자소득은 50% 만 세금해당

소득연기도 가능, 인플레이션에서 보호

금이나 증권등에는 왜투자를 하는가?

(1)인프레이션에 따른 화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973년 원유가격이 인상되기 전에는 물가상승률이 대단히 낮았다. 심지어는 디프레이션이 있은 해도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돈의 값어치가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73년 15년동안이나 고정됐던 원유 가격이 배럴당 $2.75에서 1년간 무려 4배인 $12선으로 폭등, 모든 물가도 따라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율은 연 18%선까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10만달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 인플레이션율18%에 해당하는 $18,000를손해보는 결과가 된다. 소득세율이 50%인 사람이 연 16%씩 이자소득을 얻을경우는 반인 8%에 해당되는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실질소득은 8천달러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경우도 여전히 1만달러의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하여 실질소득이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하는 곳에 투자 하려고 한다.

75년부터 많은 돈이 증권시장으로 몰려 금과 주식값이 폭등했다. 주식값의 과거 5년간 상승율을 보면 토론토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주식은 평균 10배 올랐으며, 30배 이상 오른 주들도 많다.

(2)세제면에 혜택이 있다. 금이나 주식등에의 투자는 투자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1만달러의 소득을이자,또는 투자소득으로 벌었을 경우, 세금차이를 계산해 보자.

이자소득의 경우, 1천달러의 기본공제액을 뺀 9천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투자소득인 경우는 절반인 5천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면 된다.

투자소득세율에 대한 우대는 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며, 1972년 전까지는 투자소득에는 전액 세금이 면제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투자소득의 경우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이 실현되는 연도를 조정함으로써 세금지불을 연기하거나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가지고 연 15%하는 5년만기 예금증서와, 15%씩 올라가는 주식에 각각 달러 투자를 했다고 하자.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5년후 결과는 같아지지만 세금문제를 고려하면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미 언급했듯이 투자소득에는 훨씬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외에, 이자소득의 경우는 5년만기 예금이라도 이자계산은 매년말 정산하여 T-4 스맆이 세무성에 발송되므로 매년자기소득에 이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는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세금을 계산하게 되며 판 해의 총소득이 기초공제액을 미달할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소득이 적은 해에 이윤을 취하도록 조정할수 있다.

10만달러를 주식에 투자하여 5년후 30만달러가 되더라도 이를 팔아서 이윤을 취득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연 배당소득 제외)또 세무성에 보고도 안된다.

자금의 출처관계로 은행을 통한 이자소득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주식같은데 투자함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금을 늘려갈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위험하다고할수도 있으나 그것은 큰 이윤을 위해 위험한 주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큰 은행중의 한 예를 보면, 77년 $14하던 것이 4년간 150%올라$34가 되었으며, 배당소득도 별도로 매년 5~10%씩 있었다.

이런 경우 돈을 가지고 예금증서를 사는 것과, 그 은행의 주식을 사는 경우 안전도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투자결과는 상당한차이가 날 수 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면상 생략하고 다음에는 금의 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겠다.

(계 속)

본란의 필자 강씨는 북미에서는 가장큰 증권회사중 하나인 메릴린치 토론토지사에 투자상담역으로 근무하고 있다.

필자와 직접 통화는 (416)361-3428

◆철의 장막 저편-10일 스위스통신에 의해 제네바에서 공개된 폴랜드 강제수용소 사진, 계엄령하에 체포된 지성인들과 솔리대리티멤버들이 억류되어 있는 곳으로 바르샤바근교 비아로첸카에 위치해 있다.

"두려움도, 편견도 없이"(Without Fear or Favor)

—토론토 한국일보의 자세—

교역자청빙공고

토론토 한인선교교회(캐나다 장로교회 소속 교회임)에서는 사명감이 두터우시고 헌신 적으로 목회하실 목사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목사님의 연락을 바랍니다.

자 격 : ①목사안수를 받고 3년이상 목회경험이 있으신분.(북미에서 신학을공부하시고 목회경험이 있으신 분을 더욱 환영함)
②영어를 구사할수 있으며, 앞으로 캐나다 장로교 교단에서 인정 받으실수 있는분.

대 우 : 캐나다 장로교회의 기준에 준함.

제출서류 : ①이력서 한글, 영어 각1통.
②목회소견서 1통
명암판사진 2매

연 락 처 : KOREAN MISSION IN ST. MARK'S PRESBYTERIAN CHURCH
1GREEN LAND RD. DON MILLS
ONT. M3C 1N1
(416)624-8476(조장로)
(416)298-4099(허장로)

토론토한인선교교회

해밀톤 한인회

본 한인회에서는 지난 12월26일 회장선거에 이어 아래와 같이 82년도 임원및 자문위원을 선임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회장	이영구	서부지부장	김차원
부회장	조성학	마운틴지부장	임재량
총무	이영재	고문	최태호
기획	장무웅	자문위원	윤치복
문화	차동열	〃	이창희
섭외	김태영	〃	신경순
부녀	김수진	〃	차인규
배링톤지부장	이대우	〃	조용구
동부지부장	정원규		(무순)

1982년 1월 10일

해밀톤한인회 회장 이 영 구

사교춤교습

금요일저녁(1월29일~4월2일)10주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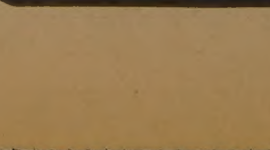
*기초반(오후7시30~9시까지)
내용 : 한국식 각 댄스의 기본스텝 부루스, 지루박(한스텝, 두스텝) 도롯도, 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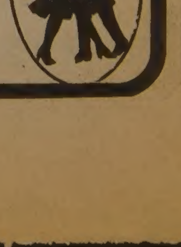
*중급반(오후9시~10시30분)
내용 : 기초반을 마친분으로 각댄스의 고급 스텝및 지루박(삼박자스텝) 탱고 탱고, 차차차.

*교 사 : 김 유 수 (현BOARD OF EDUCATION CANADIAN DANCE CLUBS 교사)

*장소및 우편신청 : Y. KIM (WINDERMERE UNITED CHURCH) 356 WINDERMERE AVE. TOR. M6S 3L3

*문 의 : 366-4728, 769-5611
*회 비 : 싱글 $40, 커플 $70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②

첫 부 임(고삿갓)

고마태오

그동안 바티칸 제2차 공의회 시작과함께 교회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우선 라틴어로만 되어있던 예전용어가 각민족어로 바뀌었으며, 또 신자들을 등뒤에두고 미사지내던것이 이제는 집전자가신자들과 마주보며 봉헌하는등의 쇄신이 있었다. 그리고 신심생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성체강복과 묵주신공을 바치던습관이 신자들의 일상적인 신심생활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런 신심운동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요즘 1981년도 다시 부 활하고있다.)

제대에 모셔있던 예수님의 십자고상도 현대미술의 영향인지 모르나 피흘리는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고난상 대신 가시관이 없는 십자가상이 아니면 부활하여 승천하시는승리의 예수님상으로 많이교체되고 있다. 성당 안에 줄지어 서있던 그많은 성상(聖像)도 하나둘 모습을감추기 시작했고. 다만 예수님상과 성모상과 성당 주보성인상만이 남아있다.

예전 음악면에도 주일날 대미사때마다 장엄하게 울려퍼지던 그레고리안 성가대신 누구나 쉽게 부를수있고 알아들을수있는 민요나 상송곡으로 대치되고있다.

이모든 쇄신이 무언가새롭고 단순하고 친근감을주고 있었으나 반면 감동적이고 엄숙하고 신비스러운 "종교성"이 사라져 가는듯한 인상도 없지않아 있어 마음 허전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교회의 이러한 예전상의 쇄신앞에 많은 보수파 신자들은 적지않은 불만을표시하며, 매스컴을 이용해반대의견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기도 했다. 신부들 사이에도 공의회가 시도하고있는 쇄신에대한 반대—찬성양파로 갈라져 심각한 대립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공의회가 몰고온 "쇄신바람"은 전세계 교회전면을 휩쓸고 있었고 특히 젊은세대로 대표되는 쇄신찬성파는 걷잡을수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교회의 장래를위해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게 하면서도 뭔가 염려되는 기대와 혼란이 교차되는 그러한 나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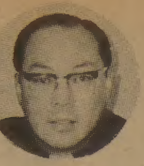
교회안의 변화는 이러한 외부적인 면에만 한하지않았다. 성직자들을 비롯한평신도들의 신앙에대한 정신자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가톨릭적 신앙의 특징이 여러가지있으나 그중의 하나가 교회의 절대적 권위와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성부이신 하느님께 순명하셨음 같이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진리를 전수한 교회에 절대순명한다. 따라서 주님을대신한 교회의 최고 으뜸인 교황에게 우리는 절대 순명한다. 그런데 교회의 이러한 권위에대한 일종의도전인 비판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같았다.

공의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가침의 영역이던 교황의 권위에 서슴없이 비판을 가하는 신학자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들 젊은 신학도들은 그러한 신학자들의 말을 즐겨듣고 받아들이며, 또한그들의 용기를 부러워 하기까지 했다.

평신도들도 교회의 권위에 외면하는것 같았다. 예를들면, 산아조정(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산아제한을 산아조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등에 그들은 무관심하는것 같았다.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가톨릭신자임을 자처하고있다. 이처럼교회는 무언가 나날이 달라져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쇄신속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것은 신부들의 독신제도였다. 바티칸 제2차 공의회시작과 함께 신부들의 독신제도에대한 찬반론이 심심치않게 언론에 표면화 되었으며, 이 독신제도가 곧 폐지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신학자와 평신도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공의회중에전세계의 저명한 가톨릭지성인 80여명이 공동명의로교황 바오로6세와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에게 신부들의 독신제도를 고려해줄것을 요청한일도 있었다. 이정도로 신부들의 독신제도는 일반신자들에게도 크나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65년3월어느날 모래알에서 발행되는 캐나다 5대신문의 하나인〈라 프레스〉는 젊은신부로부터 은퇴한 신부까지의 모든 연령의 신부들 1000명과 평신도3000명을 상대로 신부들의 독신제도에 대해 앙케이트를 한바, 다음과같은 흥미로운 통계가 발표되었다.



◇고종욱 신부

(가)—현재 사제생활 전반에 관해서(신부들을위한 설문)
1. 대체로 만족하는자—47%
2. 별로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 하게도 여기지 않는자—35%
3.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자—18%

(나)—신부들의 결혼에 관해서
1. 찬성한다—27%
2. 반대한다—32%
3. 신부들의 자유의사에 일임해야한다—41%

(다)—신부들의 결혼에 관해서(평신도를 위한설문)
1. 찬성한다—36%
2. 반대한다—29%
3. 신부들의 자유의사에 일임해야 한다—45%

(라)—신부들의 결혼에 찬성한 평신도들의 결혼관.
1. 귀하는 귀하의현재결혼생활에 만족하는가? —72%
2. 귀하는 귀하의 현재 결혼생활에 불만스러운가? —7%
3. 모르겠다—21%

(마)—신부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평신도들의 결혼관.
1 귀하는 귀하의 현재결혼생활에 만족하는가? —24%
2. 귀하는 귀하의 현재 결혼생활에 불만스러운가? —29%
3. 모르겠다—47% (이숫자에는 독신녀와 이혼한 사람들이 절대다수였다.)

위 통계에 나타난 흥미로운점은 원만한 결혼생활을하는 사람들편에 신부들의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신문들은 또한 이러한저명한 신부들의 환속을 서로 앞을다투며 기사화했다.

그리고 환속하는 신부들도 무슨 자랑거리나 되는듯 "왜 나는 사제직을 떠나는가?"등의 긴다란 설명서를 신문과 잡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내가 공부하고있던 옷따와 신학원에서도 벌써 2명의 젊은 교수신부가 환속했고, 학생, 수련자중에서도 여러명이 수도원을 떠났다. 우리들학생—신부들 사이에도 휴식시간이 되며 신부들의 환속문제가 화제의 중심이 었다. 환속하고싶어도 사회적응문제와 개인의 체면과 가족과이웃에게 실망을 주게되는 염려등을 생각해서 환속을망설이는 신부들도 있는것 같았다. 신부들의 환속은 무슨 유행처럼 나날이 계속되었고, 1965년말 퀘벡주에서 5명의 신부중 한명의 신부가 환속한것으로 되어 있었다.

환속하는 신부들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도많이 달라져가고 있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속한 신부들을 "파계자, 배반자, 타락한자"등의 대명사로 사회가 배척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학교에서나직장에서 아무런 차별없이그들을 환영하고 있었다. 이들에대한 교회측의 태도도많이 관대해졌다. 어떤주교는 환속하는 자기신부들에게 3개월~6개월간의 생활비를 충당해 주기도했다. 그리고 교회계통학교의 교리선생으로 그들을 채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교들이 많은수는 아니었지만그래도 얼마전만 하더라도생각할수 없었던 이러한 관대한 처사가 하나둘 있기 시작했다.

당시 교회가 겪고 있던 이러한 쇄신과 혼란의 와중에서도 나는 단 한번도 내 사제성소를 의심하거나 또 환속을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나를 사제직에 불러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하며, 나는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고, 수련 생활에도 전념하고 있었다.

(계 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인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일보 광고문의처
533—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17)

팔리·모왓 원작, 현재훈 옮김

이러한 이유때문에 또 강물에 고기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앙쿠니 호수를 뒤에 두고 쿠위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쿠위강은 깊지 않았지만 물결이 센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우리는 갑자기 강이 꺾이는 곳에 닿았고 강언덕위에 두개나 되는 비석이 서있는 것을 보았다. 이 비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큰 위안을 주었는지. 사람들이 이땅의 곳곳에 비석을 세운 이유와 비석들이 말없이 주는 힘을 알 수 있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짓눌린 감정과 생명의 바깥이 텅 비어있는 어떤 곳으로 우리 모두가 빨려들 어온것같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는 비석을 쳐다 보는 순간 싹 걷히고 말았다.

그다음날 오정때쯤 우리는 서쪽 깊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쿠위강은 점점 강다워졌다.

보통 강들은 상류로 올라올수록 강물이 적어지는데 쿠위강은 아상하게도정반대였다. 강을 따라와 보니 드디어 한 호수가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너무 조용해서 졸음이 오는듯한 날씨가 순간적으로 회오리바람같은 거센 바람으로바뀌었다.

강바닥은 얕아서 순식간에 물결이 카누를 들어 올렸고 일부러 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카누를 밑으로 메다 꽂았다.

오호토는 카누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물을주전자로미친듯이 퍼냈고 앤디와 나는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못잡는 카누를 가장 가까운 언덕으로 죽을 힘을 다해 저어갔다.

내인생을 통해서 어떤것이강풍처럼 나를 공포의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 없었다.

우리가 미처 마음속으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상상외로 더 컸던 것같다.

어쨌던 우리는 목숨을건졌지만 그 일을 당한 후에는 내가 바렌을 지나가거나 카누로 이평원의 강이나 호수를 건너갈 때 옛날 뱃사람들이 갖고 있던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을수없었다. 그래서 항상 지나온 곳을 뒤돌아 보고 그어떤 것이 무방비한 상태의 나를 습격하지 못하도록주의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우리들은 암초사이에 카누를 숨기고 있었는데 그 [illegible] 폭풍이 처음 일어났을때 처럼 갑자기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파도가 뱃전을 두드려댔다. 우리는 곧 허둥지둥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 마치 쥐가 쫓기다가 큰 벽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물가의 바위를 껴안고 있었다.

그후 5일동안 강윗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많은 폭포들의 물결이 너무 세서 우리는 모든 장비들을 물이 흠뻑 고여있는 육로로 운반해야만 되었다. 언덕과 산이 모두 물에 잠겨서 그들의 등줄기가 마치 물소들이 늪에 잠겨 등만 보이듯이 까맣게 보였다.

거기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웅덩이에 빠져 있는것 처럼 물이 지구의 모든 표면을 덮고 있는 느낌이었다.

파리와 모기떼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살아있는 의복처럼 우리의 몸위로 새까맣게 기어 올랐다.

오호토는 짧은 실에다가 낚시바늘을 달아가지고 빠른 강물을 지날 때마다 낚시꾼의 훌륭한 솜씨를 발휘했다. 물가의 바위위에 바짝 붙어서서 머리위로낚시줄을 빙글 돌리다가 깊은 곳에 던져 넣으면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살이 빨간 큰 트라우트를 건져내곤 했다. 저녁때 모닥불주위에 둘러 앉아 물고기를 삶아 먹었다. 모닥불을 피울 수 없을때는 날생선을 먹었다. 식량이 거의 떨어져 주로 생선만을 먹었다. 그런데 그렇게 다량으로생선을 먹었는데도 스테미나도 없고 기운이 솟지 않는 걸 보아 생선만 먹고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닷새째되는 날 우리들은 강옆에 붙어 있는 작은 호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거기서 우리는 옛사람들이텐트를 쳤던 장소를 보았는데 아주 작고 완전한 원형이 아니었다.

(계 속)

거 구 장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쇼쇼쇼
거구장이 교민에게 드리는 구정 특별선물
* 매력의 저음가수 남일해씨 토론토에 오다!!
일시 : 1월21, 22, 23, 24일(목, 금, 토, 일)오후9시~새벽2시까지
장소 : 거 구 장
주소 : 5 BETHRIDGE RD. (키프링×HWY 401 1블럭 북쪽)
권순근과 그의악단 매수 목, 금, 토, 일 출연
전화 : 742—1618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名門大 未達예방에 부심

내일부터 前期大 願書접수시작

合格線 예상보다 1~2點낮을듯

安全위주보다 과감하게 選擇을

전기대입학원서 접수 시작이 11일로 다가선가운데 문교부와 각시·도교육위는 대학선택에따른 수험생의 혼란과 예산가능한 미달사태를막기위한 마지막 대책수립에부심하고있다.

문교부는 9일현재까지의 입시진행상황을 분석, 올해에도 역시 지난해와같은 일부대학의 미달사태가 있을것으로 우려하고, 미달의 방지를위해 각고등학교는 지나친 안전위주의 학교선택대신 과감한 진학지도를 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가 미달을 우려하고 있는것은 첫째 현재까지입시전문지나 일부사설단체가 제시해놓은 대학별예상커트라인이 지난해와같이 다소높게 책정돼있고 둘째 각고등학교가 학교의책임을 지나치게의식해 안전합격만을 강조하고 있고 세째 수험생자신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붉고보자는 심리가 팽배해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

문교부는 이같은 판단아래 현재의 진학지도분위기가 계속되는경우 일부대학 특히세칭 명문대인기학과의 미달이 불가피한것으로보고 각시·도교위를통해 각고교의 진학지도를 현재수준보다 1~2점 낮추는선으로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있다.

이에따라 서울市교위는 8일과 9일 교감·교장회의를 연쇄적으로 소집,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학교측의 안전일변도 대학선택이 수험생들에게 자칫 손실을가져오는일이 없도록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문교부당국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복수지망제 때문에 미달은 어디까지나제 1지망에서의 미달일뿐 제2 제3지망에서는 미달이 거의 없을것이기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요행합격을 기대해서는 결코안될것이라고 경고했다.

◇敎授들도 나선 優秀生 유치作戰 각대학이 우수신입생 확보를 위해 갖가지방법을 동원하고 있는가운데 高麗大는 경영대지망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9일하오2시 高麗大 경영관 604호실에서 경영대지망생 학부모등 1백50여명이 모인가운데 연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수들이 차트까지만들어 각가지 강점을 설명하는 성의도 보였다。

2·3志望 「요행」안통해

高校마다 資料없어 고심

대부분 入試專門誌 의존

科선택 학생不利없게

한편9일현재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입학원서작성에 착수하고는있으나 진학자료의 절대부족으로 큰곤란을 겪고있다. 지난1년간 입시정보와 진학자료를 모아왔던 서울의 일부고교를 제외한대부분의 지방고교들은 학교자체의 합격기준점수표를 마련하지 못한채 입시전문잡지의 대학배치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학지도교사들은 그 어느해보다도 올해 진학지도가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낮춰가느냐』『모험을 거느냐』의 진퇴양난에 처해있다고 호소하고있다.

한편 자체진학배치표를 작성해, 진학상담에 열을 올리고있는 고교들도 올해부터는 일제히 이기준표를 비밀에붙이고있다. 한학교의 지원기준표가 공개되는 경우, 다른학교에서 이표를 이용하기때문에 공개한 학교만 큰피해를 입는다는 주장.

그러나 대부분의 진학교사들은 이기준표가 문교부의 우려대로 「안전합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문에 공개된 대학배치표보다도 1~2점높게책정돼있다고말했다.

고등학교가 작성하는 합격기준표는 학교의 명예는 물론 고득점자가 낙방했을때의 학교책임을 지나치게 의식, 입시전문지의 합격선보다 1~2점정도 높게 책정한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高校의 한 진학지도교사는 그예로서울醫大의 합격선이 2백93점으로 돼있으나 2백94점으로 잡았고 高大경영학과는 2백56점으로 돼있으나 2백61점으로 예상하고있다고말했다. 【金時福기자】

讓渡稅완화·金利再引下 건의

개인財産 기업投資땐 非課稅로

民正, 景氣부양대책 마련

民正黨은 당면한 經濟難局을 打開하기 위한 景氣浮揚策으로 주택을 비롯한 일반건설景氣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讓渡소득세의 탄력성부여와 기업의 利子부담을 줄이기위한 金利引下등을 9일 정부에건의했다.

이같은 經濟활성화및 景氣浮揚종합대책은 黨政策硏究所(소장 黃炳晙의원)가 8·9양일간 기업인출신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民正黨은 이건의에서 景氣浮揚을 위해서는 中小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결론에따라 각종정부工事發注를 앞당기고 重化學공업등 大企業에 偏重되어있는 정책금융의 配分을 재검토하여 中小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확대하는 한편 기업인이 개인재산을기업을위해 전환시킬때 非課稅하도록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民正黨은 또한 이건의에서 경제活性化와 관련, 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資金難완화를 위해 ▲金利引下 ▲기업의遊休不動産을 적절히활용 ▲그리고 脫稅를 하지않고도기업이성장할수있는 방향으로 租稅제도를 개선할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金 유엔大使등에 全大統領 任命狀

全斗煥 대통령은 9일상오 청와대에서 金瓊元 신임駐유엔大使와 李相周 江原大총장에게任命狀을 주었다.(사진) 이자리에는 金容烋 총무처장관이 배석한다.

駐유엔 金瓊元대사 駐佛 尹錫憲대사 政府, 어제發令

정부는 9일 金瓊元 前대통령비서실장을 駐유엔대사에 임명발령하고 尹錫憲駐국제연합대표부대사를 駐프랑스대사로 轉補 발령했다. 閔丙岐駐프랑스대사는 이날자로 외무부본, 부대사로轉任됐다.

民韓 黨職者전원 一括사표 옴직임

民韓黨의 일부黨職者들이 오는17일 創黨1주년을 계기로 당직일괄사표를 柳致松총재에게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주목되고 있다. 韓英洙정책심의회의장은9일 당직자一括辭退論을 거듭주장하면서 ▲지난1년동안의 功過에대해 당직자들이 총재에게 재신임을 묻고 ▲발전적변화를 요구하는 소속의원들의 주장에 부응하며 ▲강력한黨지도부의 역량을 발휘할수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民韓 16일創黨한돌

民韓黨은 16일 상오10시汝矣島당사 회의실에서 創黨1주년기념식을 갖는다. 民韓黨은 創黨日이 17일이나 이날이 일요일이기때문에 기념행사를 하루 앞당기기로 했다.

波, 拘束者 곧釋放

勞組副委長제외 바웬사會見도 허용

【파리8日AP=聯合】 폴란드군사정부는 지난달 13일 계엄선포후 체포된 인사들가운데 자유노조 부위원장 1명을제외하고는 전원 석방할계획임을밝혔다고 프랑스·스와르紙가 8일 보도했다.

폴란드 구국군사 평의회의장 뵈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의 보좌관인 미에스와프·고르니키 대위는 7일 덴마크수도 코펜하겐에서 가진 프랑스·스와르지와의 회견에서 그같이 말하고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에게는 아무런위해도 가해지지 않을것이며 아마도 앞으로 수주내에 서방기자들과의 회견도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르니키대위는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평화회의에 폴란드대표단을 이끌고 참석중인데 계엄선포후의 反政인사검거문제에 언급, 투옥된 인사들수가 5천명을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전 자신이 바르샤바를떠나올때 4천4백명이투옥돼 있었다고 말했다.

公共電話 통화재개

【빈8日UPI=聯合】 폴란드당국은 지난해 12월13일 계엄령선포와 함께 단절했던 모든도시의 공공전화교신을 10일부터 재개한다고 바르샤바방송이 8일 보도했다.

숨은有功공무원 발굴 褒賞

올해 3千명뽑아 手當·休暇주기로

정부는 금년도 공무원人事관리의 목표를 「합리적인 人事제도의 定着」에 두고 성실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함께 숨은 有功공무원을 발굴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능력개발을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9일 정부당국자에 의하면 성실한 공무원의 신분보장강화를위해 ▲懲戒제도 운영에 합리성을 높이고 ▲불공평한 인사에대한 상담과 갈등, 욕구불만의 해소를위해 人事와 苦衷상담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직업공무원과 非직업공무원간의 領域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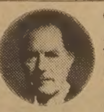
또 공정한 인사관리를위해 人事交流심의위등 중앙인사행정기구의 운영을 활성화, 全政府的 차원에서 人力을 관리하고 緣故地에 배치하는 地域別 채용제도를 7급(主事補)에서 9급(書記補)에까지 화대키로 했다.

숨은 有功공무원의 발굴褒賞을 위해서 정부는벽지나 落島·민원창구등 일선 행정기관의 下位職에 우선, 3천명정도로 선발, 手當과 특별휴가등 特典을 주기로 하고 금년에는 공직생활면에서 근면·성실·청렴, 유능하고 봉사정신으로 신망과 존경을받으며 모범가장으로 근검·절약하는 모범공무원을 뽑아 淸白吏賞을 주기로 했다.

社会漫評

佛家에도「自由머리·自由복장」

英 外務담당無任所 애트킨스 오늘來韓



험프리·애트킨스 英國외무담당 무임소相(사진)이 정부초청으로 10일 來韓한다. 極東순방길에 來韓하는 애트킨스무임소相은 4일간 우리나라에 머무르며 全斗煥대통령을 비롯, 劉彰順국무총리서리, 盧信永외무장관등을 차례로 예방,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요담을나누며 板門店을시찰할예정이다.

科學技術院長 林寬씨를選任

한국科學技術院(KAIST)은 9일상오 11시 임시이사회를열고 제3대원장에 林寬박사(사진·48·美아이오아大 재료공학 부교수)를 선임했다. 林박사는 서울대공대 재학중인 53년渡美, 60년 美노드웨스트 工大에서 응용기계분야 연구로 工學博士학위를받고 60년이후 아이오아工大서 교수로 재직중, 74~79년, 학장서리(78년)를 역임하며 우리나라 기계산업발전에 크게기여, 81년 과학의날엔 국민훈장을 받기도했다.

얼굴 外交界28년…치밀한學究派 尹錫憲 駐佛大使

만28년을 외교계에 몸담아온 순수 직업외교관. 과묵하고 치밀한데다 學究派로서李朝때 전형적인 학자를 연상시키나 문제의흐름이빨라 불필요한 「消耗외교」를 제거할줄 아는타입. 만2년9개월을 駐유엔대사로 奉職하다 다시 前任경력이있는 駐프랑스대사로 再任된것은미테랑 대통령등장이후 對佛외교를 재정립하기위해 그의 외교力量이 필요했기때문이라는 분석.

서울大 文理大 政治學科를졸업후 大邱大學에서 英語와政治學을 강의할만큼 학구적이며 특히 英語와 佛語가 A級.

日 安保閣僚회의 對韓經協등 토의

【東京8日趙=聯合】 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은 이달 중순께 안보관계각료회의를 소집, 폴란드사태와 관련한 일본의 대책과 對韓경제협력문제등을 토의할 예정이라고 일본정부 소식통들이 7일 말했다.

地平線

통금이 없어지고, 첫 주말을 맞는다. 평소 밤나들이가 잦지않은 축으로서야, 일상의생활이 그리 달라질것도 없지만, 느긋하고 호뭇한 생각은 매한가지다. 더구나 밤이 풀렸다고, 사고나 발선이 는것도 없고, 오히려 거리가 차분하다니, 더 좋다. ▼그러나「24시간시대」의 첫 나흘은 자유로와진「밤의 管理」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것 같다.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이 길어지고, 버스·택시가 밤 늦도록 운행되는등이 신민들로서는 반가운일이지만, 그일을 감당해야할 사람들에게는 밤이 피로울수 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일 더하고 手當이 없다』는 신문의 표현(9일字 본보 11면) 대로, 그고역에 댓가마저 주어 지지않는다면, 그야말로 불공평한 일이다. ▼이 가운데서도 접객업소는 형편따라 적당한시간에 문을닫으면 그만이겠지만, 교통기관은 심야운행이 의무지어졌으니 그럴수도 없다. 지금 운수업의 근무체제대로 한다면, 경우에 따라시내버스는 하루 20시간 30분, 고속버스는 18시간, 택시는 24시간을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운전사가 있게마련인것이다. 밤거리의 안전을 생각하여, 일부 운수업종사자의 일로만 돌릴수가 없는사정이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의93·8%는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다. 그가장큰 원인이 과로한 근무조건에 있음은 거듭 지적되고있다. 일본에서 조사된것을보면 하루16시간, 4백㎞ 이상을 운행한 운전자의 47·8%가 두통을, 56·5%는 나른함을, 39·1%는 건망증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도 하루 20시간, 근5백㎞를주행하는 서울 택시운전사가 어떻지는 짐작되고 남는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도록 권고하고있다. 하루의 최장 근로시간을 10시간이내, 계속운전 4시간이내로 하라는것이 그골자다. 그렇지않고는 안전을 확보할수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 道路交通法에「…누구든지 과로·질병…기타사유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있는상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것도 같은취지다. ▼근40년간을 끌었던 통금이 해제된뒤 끝이라, 달라져야할 구석도 많고, 마음쓸 곳도 한두군데가아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다급한것이 밤의 교통안전이 아닌가 한다. 밤새 교통편의를위해서, 버스·택시의 심야운행을 지시하는것만으로 행정이 제몫을 다 했달 수는 없다. 해방된 밤은 모두에게 즐거워야하고, 그시간은 편할뿐아니라, 안전해야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토론토한인합창단(단원모집)

인 원 수 : 각파트 10명씩
자　　격 : 합창경력이 있는사람
연습시간 : 1월22일(매주 금)오후7시
장　　소 : 연합교회 음악실
(300 BLOOR ST.W.)
※입단을 원하시는 분은 497−0406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금년도 행사
1. 굶는사람들을 위한 자선음악회(4월)
2. 시카고 연주여행(5월)
3. 메시아 연주회(12월)
※이외에 작은 음악회가 가끔 있읍니다.

토론토한인합창단 재단이사회

아침에

A兄,時間이 좀 걸리겠지요

누구나納得하는 共通點 저절로 나옵니다

千寬宇 〈本社 고문〉

A兄, 성명 三字는 꼬박꼬박 親筆로 써보내시는 年賀狀은 이번에도 감사했읍니다. 혀과같이 일정이 항상 바쁘신 분은 친필 서명만도 대단한 作業부담이었겠는데 한고, 그 三字 위에다가 혀의얼굴을 잠시 떠올려 보았읍니다.

어디를 헤매다 왔는지 철늦게 찾아드는 연하장이 작금에도 더러 있지만, 새해가 된지도 열흘, 정초의 連休를 보낸지도 일주일, 아직도 새해 타령이란 것도 쑥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 連休에는 큰 變化를 알려주는 뉴스들이 정말 많지 않았읍니까.

× ×

우선 夜間通行禁止가 없어졌읍니다. 막상 장막을 거두어놓고보니, 治安當局으로서도 아직은 큰걱정은 없는 모양이고, 식구가 보금자리로 늦게 들어올까 걱정이던 主婦 諸位로서도 역시 아직은 별 문제가 없는 모양이라 다행입니다.

晩餐은 밤이 늦어서 시작이 되어 버렸에나 能하는 풍습도 어느 나라인가에는 있다는 모양입니다만, 우리는 본래가 그렇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通禁제도가 생기기는 해방직후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農村이건 都市건 야간통행을 꼭 해야할 일이 그렇게 많았던지어떤지 기억이 희미합니다. 먼길 떠나는 사람은 첫닭이 울면 짚신 감발하고 나선다고했는데 나자신 그런 경험도 별로없군요.

忌祭祀가 드는 날이면 大小家가 모여 법석거리다가 子正이지나 역시 첫닭 울기전에 끝내는것이 보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近者에는 특히 도시의 경우 여러집이 한군데에 모여 밤을 새기가 어려운 형편들이 되어오면서 부득이 초저녁 제사를 지내고 通禁전에 각기제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으로압니다. 이제 통금이 없어졌으니 이습속은 농촌이나 도시나 또 어떻게 될는지요.

餘談입니다만, 둘다 초저녁 제사를 지낸다는 X씨와 Y씨의 「제사날짜」論戰을 경청한 일이 있읍니다. X씨는 古來로 제사는 忌日하루전에 지내왔다는 說이어서, 이를테면 九日이 기일인때는 八日초저녁에 지내야한다는 것이었읍니다. Y씨의 說은 달랐읍니다. 옛날에도 집안이 모이기는 기일 전날 저녁이지만 祭를 지내는 시간은 子正이 지난 분명히 忌日 당일 初이었던만큼, 九日이 기일이라면 초저녁 제사 역시 九日초저녁이라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X씨나 Y씨나 傍聽者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家禮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날 결말은 목소리 큰 편이 다소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家庭儀禮準則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옛날 禮書들도 모두 초저녁 제사란 생각지도 않은 시대에 나온 것이라, 역시 도움이 될수는 없겠구요.

요즘 세상에 煩碎한 儀禮是非를 또 벌이겠다는 이야 있겠읍니까만, 특정종교의 信徒 가정을 내놓고 아마도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도 매년 몇번인가 격어야하는 일이라, 무언가 有權解釋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通禁해제 이후에 제사시간의 풍습이 자연히 달라진다면 별문제이겠지요만.

× ×

남녀 中·高校 학생의 차림차림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校服은 내년부터, 머리모양은 「금년부터」, 제각기 좋을대로 하게하고 남학생은 校帽도 없어진다지요. 「우리 학교교육의 최대 문제점인 教育의 劃一主義를 깨는 중대한 轉機」라고 하는 文教當局의 엄숙한설명에 앞서, 이제부터 학교풍경, 거리 풍경, 집안 풍경이 차차 달라질 것 같아 제법 호기심을 북돋아 줍니다.

신문의 解說을보면, 교복과 머리모양을 통일시킨것은 일본 強占下인 1920년대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 사진을 보면, 두루마기에 校帽를 쓴 남학생이나 가슴에 배지를 단 댕기머리 여학생정도의 標識는 그보다 훨씬 앞서부터가 아니었던가 모르겠읍니다.

제각기에 맡긴다고 하지만, 아직도 中學生은 역시 부모의 嗜好가 많이 작용할 것같고 高等學生이 되면 상당히 個性이 드러나겠지요. 이 온갖 스타일이 한 교실에 만발한 유쾌한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제작년인가에 한번 하기로 했다가 중단된 것이지만, 아뭏든 시원스러운 決定이었다고 하고싶습니다.

더러는 誤解도 나올 것이고 철년 특유의 自己顯示癖도 나타나겠지요. 선배에게서 물려받은 괴상한 「破衣弊帽」도 부족해서 거기에 「破」·「弊」의 손질을 더해가지고 멀치고 다니던 그나이또래의 實例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학생은 하고 싶어 하고 부모나 학교는 못하게 하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상식으로 보다 건전한 共通圈이 학생 차림새에도 자연히 형성이 되겠지요. 요즘 텔리비전에서 흔히 보는 美國의 中·高校 교실이나 교정 풍경정도도 우리로서는 좀 지나친 부분이 없을까, 나 개인은다소保守的인생각을합니다만.

그러나 그 共通圈의 형성에도 꽤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요. 크건 작건 制度가 시작이 되면 그것이 着根하기까지 상당한 混線은 따르게 마련일 것입니다. 通禁해제만 해도 벌써 밤늦게까지 일거리는 생이는데 報酬가 따르지않는다는 從業員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運營의 妙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補完의 妙가 아닐까요. 方向은 잘 잡았는데 막상 해본 즉 귀찮은 일이 많아 前으로 되돌아 가자느니 하는 말은 앞으로 없어야 하겠읍니다.

× ×

新年連休中의 또하나의 큰 소식은 역시 改閣이었읍니다. 「해 뜨면 나와 일하고 해 지면 들어가 쉬는데…帝力(정치)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하는 擊壤歌는 태평성세의 상징처럼 여겨 왔지만 요즘 세상 인심은 그렇지를 않아 變化를 좋아하는 듯합니다. 무언가 좀더 좋아지는 새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이겠지요. 새로 登場한 분들도 소신껏 나라와 백성 위해 일해 줄 것이고 보면 期待도 그만큼 큽니다. 그러나 진부한 蛇足을 한나더 붙이자면, 부디 民心의 所在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改閣에 新任 국무총리가 野系의 한분을 비롯한 역대 前 대통령을 예방하고 협력을 청했다는것은, 비록 자그만 一段記事였지만 많은 사람의 화제에 올랐읍니다. 지난 年末에 정치에관련된사건의 服役者여럿이 釋放되었던 것도, 지점으로 아는이 모르는이를 막론하고모두 흐뭇하게 받아들인 뉴스였읍니다. 또한동안 紙上에 오르내리지 않던 著名人士 몇분의 사진이 새해접어들면서 큼직하게 다시 나타난것도 그것입니다. 民心의 所在는 이런 간단한 데에도 번득번득 나타날수 있는가봅니다.

× ×

各新聞마다 두툼한 정초特輯을 보던중에 「서울五輪준비元年」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읍니다. 서울 올림픽 결정은 작년인데, 이번 새해를元年이라니 : 할는지 모르지만, 이역시 근거가 있는 용법인듯싶습니다. 좀 유식한 態를 보이기로 하자면, 朝鮮王朝의 연대법은 新王이 들어선 해를 「即位年」, 그 이듬해를 「元年」이라 해왔거든요.

그건 그렇고, 올림픽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만큼 우리의 준비도 바빠지는 셈인데, 올림픽에 직접 관련되는 各分野는 그 분들의 勞苦에 맡겨야 하겠지만, 그밖에도 눈에띄게 안띄게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할 여러분야에서도 「준비元年」이라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새해에 더욱 간절합니다.

본국의 지방각지를 두루 돌아보는 취미를 가진 在日同胞 한분이 있읍니다. 며칠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올림픽이 화제에 오르자, 자기는 두가지 요망사항이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첫째는 전국 民家의 洗面所를 水洗式化하라는 것이었읍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찾아와 民泊도 하게되고 각지 음식점에도 들르기도 할텐데, 지금 형편으로는 한국사람 만만히 보이기가 십중팔구라, 새마을 사업같은데서라도 이보급에 힘을 기울이면 어떨까. 電話없이 살던집이 전화 한대 놓으면 생활전체가 확바뀌지 않더냐는 것이었읍니다.

둘째는 술병·술잔을 沙器로 代替하라는 것이었읍니다. 외국인이 와서 보고 여기가 한국이라고 느낄만한 것은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으니 집집마다 몇개는 있어야 할 술병·술잔이라도 그래야 된다. 불과 몇십년전, 자기가 어렸을때만해도 으레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느냐는 것이었읍니다.

「선생이 혹시 앞으로 변기나 술병사업을 하실 생각 아니시요」하고 弄을던졌더니 拍掌大笑가 터져나왔다. 재미 있는 이야기라, 가벼운 새해 선물로 A兄께 이분의 2大요망사항을 傳해 드립니다. 평범한 듯한 가운데에도 吸收해야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베이루트 또 市街戰

14명死亡 53명은負傷

시어派-親이라크民兵隊

【베이루트8日AP AFP=聯合】레바논수도 베이루트에서 지난5일부터 계속돼온 회교 시아파 민병대와 親 이라크 민병대간의 시가전은 적어도 14명의 사망자와 53명의 부상자를 내고 수십채의 건물을 태운채 7일밤 일단 멈췄다가 8일상오 재개됐다.

베이루트경찰의 한 대변인은 회교시아派민병대기구 아말운동과 親이라크·親蘇의 레바논 바트黨민병대인 레바논공산주의행동기구가 빈민가인 西베이루트의 5개회교도거주지역에서 지난5일이후 박격포와 수류탄을 주고받는 시가전을 벌였다고 말했으나 그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양측간의 시가전은 시리아軍을 주축으로한 아랍평화유지군의 노력으로 7일밤 일단 휴전했으나 8시간후 다시 포격전을 벌임으로써 당국은이것이팔레스타인게릴라 거점인 베이루트남단까지 확산되지않을까우려하고있다.

"戒嚴해제 않을땐 流血사태계속"

波지식인들, 야루젤스키首相에 書翰

【빈9日AP=聯合】폴란드의저명한 지식인들이 최근 폴란드공산당 제1서기겸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폴란드에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유혈사태가 계속되는등 한층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지난8일 서방측에 도착한 보도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 문화계인사8명이 서명한 이공개서한은 비극적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엄령의 즉각 해제와 전면적인 인권회복등 8개요구사항을 계엄당국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란、美食品 대량輸入

昨年 인질釋放후 3억弗규모

올해엔 5억弗상당 推算

【워싱턴7日AP=聯合】이란은 약1년전 52명의 테헤란美人질을 석방한뒤 미국으로부터의 대규모식품수입을 재개했다고 존·파커美농무성대변인이 7일 밝혔다.

농무성 이란문제전문가인 존·파커대변인은 지난80년의 경우 거의 제로상태였던 미국농산품의 이란行선적이 81년들어 약3억달러규모로 급증했음을 美정부통계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파커 대변인은 미국이 금년도에 4억5천만~5억달러상당의 식품을 이란에 수출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는 지난75년의 7억5천만달러 수출에는 훨씬 못미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측이 대규모식량 구입에 열을올리고 있는것은 ①세계식품수급사정의 원활화 ②저렴한 곡물가 그리고 ③이란당국이 국내 식량난을 타개하기위해 모종의 정책을 마련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中共、對美비난 激化

新華社보도 "超強國과 對決결의"警告

"臺灣무기판매 오만한 行動"

【北京8日UPI=聯合】중공은 8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합병과 똑같이 오만한 행동이며 『이 방자한 초강국과 대결할 결의를 갖고있다』고 경고함으로써 지난50년대와 60년대의 미·중공敵對시대를 방불케하는 가장 맹렬한 對美비난공세를 가했다.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은 워싱턴특파원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는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이같은 미국의행동은 최근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에 비교될만큼 독단적행위』라고 비난했다.

新華社통신은 또 중공이 근본적으로 나약한 나라이며 미국은 대만을 군사지원해야 한다는 월 스트리트 저널지의 논평에 강력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이는 초강대국의 본색을 드러낸것이며 미국이 중공의 반응을 두려워할 필요없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행할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달러 왕국의 전성시대의 오만불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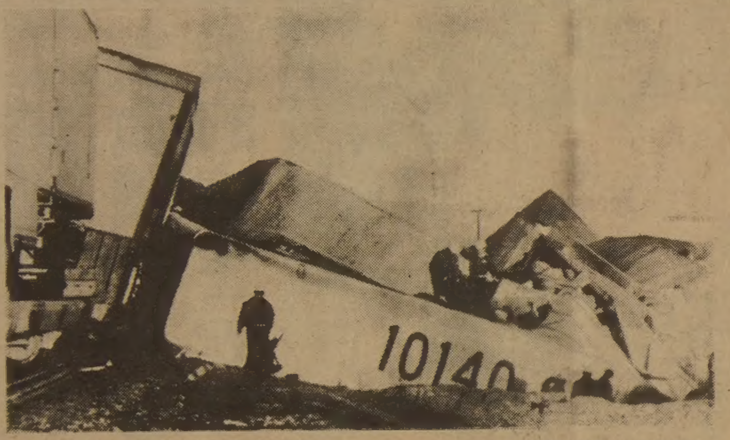
中共、黃海등 保護水域고려

日소식통 北京개최 日·中회담서討議

【東京9日共同=聯合】중공당국은 현재 황해및 동지나해상에 치어등 어자원보호를위한 보호수역의 설정문제를 고려하고있다고 9일 일본정부소식통들이 밝혔다.

소식통들은 중공이 오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북경에서 열릴 日·中共연례어업회담에서 그와같은 보호수역설정문제를 공식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일본정부측이 그와같은 새로운 어로규제설정만은 피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 양국 어업회담에서도 이문제에 대한 조정문제가 주요의제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脫線…美放射能적재列車 美國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7일밤 (현지시간) 방사능물질인 아메리컴를 싣고가던 화물열차가 탈선, 수명이 부상했으나 1백80파운드의 방사능물질이 적재된 컨데이너가 파괴되지않아 큰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8日AP=聯合】

美서「큰失望」표시

"來週 外相회담때 문제提起"

헤이그-에르뉘會談 / 佛의 對니카라과 軍援에

【워싱턴8日AP·AFP=聯合】美國은 8일 中美의 니카라과 산디니스트정부에 군사장비를 판매키로한 프랑스정부 결정에 대해 『큰실망』을 표시했다고 딘·피셔국무성대변인이 밝혔다.

피셔대변인은 알렉산더·헤이그국무장관이 이날 訪美중인 샤를·에르뉘 프랑스국방상과 가진 1시간30분간의 회담에서 프랑스정부의 對니카라과 무기판매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하고 이어 헤이그장관은 다음주 브뤼셀에서 있을 로도·셰이송 프랑스외상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反베트남 聯政수립

크메르루지도 수락

【파리8日UPI=聯合】크메르루주 舊캄보디아정권은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프놈펜의 현정권타도를 위해 非공산세력과의 연정구성을 수락한것으로 보인다고 前캄보디아수상이며 反共게릴라세력지도자인 손·산이 8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작년11월 베트남괴뢰정권인 헹·삼린 대통령이 이끄는 현 캄보디아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공산 크메르 루지세력 등 3개세력의 연정구성을 제의해왔다.

아프간-캄문제討議 中共、對蘇회담환영

李先念부주석밝혀

【北京·로마8日UPI=聯合】중공은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문제를 아울러 토의한다는 전제로 對蘇국경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중공당부주석 李先念이 밝혔다.

海外토픽

아기, 봄철에잘자라

★佛우데博士 쥐實驗통해

쥐들은 매일 잠자리에서 깨어난직후 가장빨리 자라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성장이느려지며 인간의 어린아기들에게도 이와유사한 발육사이클이 있음이 거의분명하다고 프랑스의 한 여류과학자가 주장하고있다.

스트라스부르소재 루이·파스퇴르대학의 플로린·우데박사는 쥐의성장속도가 매일매일의 생활사이클에의해 달라지기도하지만 계절에따라 달라지기도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밝히면서 쥐들은 봄철에 가장 성장속도가 빠르고 겨울철에 가장 느리다고 지적했다.

최근 美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분교에서 열린 뼈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메커니즘에 관한 회의에서 이와같은 연구결과를발표한 우데박사는 또 이같은 사이클이 인간의 소년기에서는 反轉되어 아침9시께가 하루중 가장 활발한 성장시점이 되고 저녁9시께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AP】

◇蘇서公開한 美諜者사용 장비 蘇聯은 8일 蘇聯에서 활동중인 美國의첩자들이 사용해왔다는 라디오·권총및 기타장비들을 蘇聯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紙上에 공개했다. 【모스크바8日UPI=聯合】

쌀값安定 모색

農水產部

농수산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있는 產地및 소비지쌀값을 안정시키기위해 農協으로 하여금 2백억원의 자금을 들여 80kg들이 新品種및 일반벼 36만가마(20만섬)를 오는20일까지 추가수매토록 한데이어 서울·釜山등 4대도시에 대한 상품미방출량을 하루5천가마에서 3천가마로줄이는것을비롯 다각적인쌀값안정책을마련중이다.

메아리

僧服의 변화

불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은 고행과 좌선, 그리고 깨우침의 깊이다. 수도승들은 속세를 멀리하고 깊은 山寺에서 깨우침의 어려운 길을 걷는다.

삭발을 하고 法衣를 입은 고승을 대하면 우리는 저절로 경건함에 잠긴다. 승복은 受戒人이 처음 갖출 기본조건이다. 法衣의 기원은 초기불교 교단 정립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出世間的인 필요때문에 俗人과 다른 복제가 만들어졌다.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승복도 모양이 달라졌다.

요즘 우리 불교의 袈裟 長衫은 삼국시대부터변화되어온것으로 알려진다.고구려의 승복은 중국의 袈裟를 더아름답게 만들어입었다. 백제의 승복도 고구려와 흡사한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法衣는 왕실불교 영향으로 아주화려했다. 고려에 들어와선 더욱 사치해지기까지 했다.

현대의 불교는 隱居의 고행못잖게 대중화, 사회화를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현실지향은 오늘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는 현실에 엄매이고 귀족화된 불교에 반기를 들고 속세에 뛰어들었었다.

근대에 와서 萬海 韓龍雲은 「승려가 결혼을해야 불교가 발전한다」는 대담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종교의 형식도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함을 알수있다.

조계종 다음으로 큰종단인 太古宗은 삭발, 가사착용이아닌 有髮, 신사복의 스님제도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능동적인 불교를 강조하고 나섰다.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비신자와의위화감도 덜어주기 위한제도라고 한다. 이변화에 회의를보내는 반응도있는것 같다. 우리 불교의 오랜전통이 사라져 갈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에서다.

한국불교服飾을 연구한 한교수는 새로운 승복의 제정을 제의해서 주목을 끈일이있다. 현실과 시대상에 적응하게 修行服과 외출복을 구별해야한다는 것이다. 참선이나 염불을 할때는 수행복차림으로, 그리고 속세로 외출할때는 외출복으로 바꿔 입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머리를 기른 신사복 스님이라도 한국불교의 찬란한 전통과 깊은 신앙심이 이어진다면 마다할 까닭은 없을것 같다.

종교가 형식을 떠날수는 없지만 형식보단 믿음이 더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共產黨員 암살계획 名單등 事前에작성

폴란드自由勞組

【빈8日UPI=聯合】폴란드자유노조 솔리다르노스크는 對공산당원의 암살계획을 수립, 공산당원들의 암살자명단을 작성했었던것으로 8일 밝혀졌다.

폴란드공산당정치국원 알빈·시바크는 바르샤바방송을 통해 인용보도된 공산당기관지 트리부나·루두와의 회견에서 『솔리다르노스크가개별적으로 또는 전가족을 함께 살해하기 위해 작성한 공산당원암살자명단이 놀랄만큼 긴것이었다』고 말했다.

外信안테나

◆「美·蘇정상회담 언제라도」=레이건美 대통령은 8일 현 美·蘇간의 냉각된 관계에도 불구,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와의 美蘇정상회담개최가능성은 아있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부인 낸시여사와 함께 주말휴양지 캠프 데이비드별장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브레즈네프와의 회담용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美失業率 戰後최고로=【워싱턴=AP】미국의 지난 12월중 실업률은 경기후퇴를 반영, 8·9%로 증가, 2차대전 종전후 최고수준에 육박했다고 美노동성이 8일 발표했다.

◆美首席國務次官에 스토셀=【워싱턴=AP】레이건美 대통령은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으로 승진된 윌리엄·클라크수석국무차관 후임에 유럽문제전문가인 직업외교관 월터·J·스토셀씨를 8일 임명했다. 【워싱턴=UPI】

WATCHMAN™

PATENTED SECURITY SYSTEM

도둑을 방지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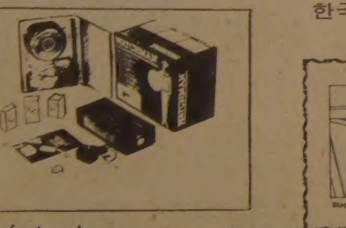
(도난방지기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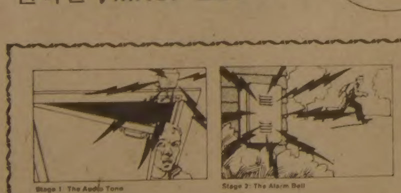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느 장소나 아름다운 현대식 모양으로 특별한 도구나 기술없이도 장치가능합니다. 이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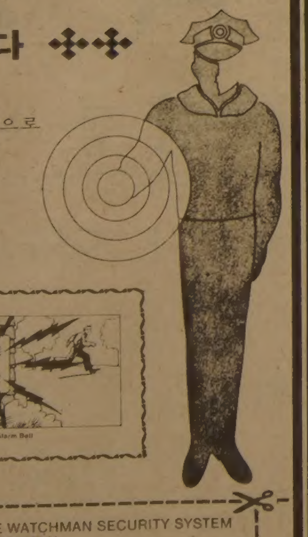
PHONE NOW (416) 661-3161

사 장 : 쌘 디

한국인 ; MRS. LEE







Manufacturer's suggested list only $299.95

coltron International Inc.

864 Alness St., Downsview (Toronto), Ont., Canada, M3J 2H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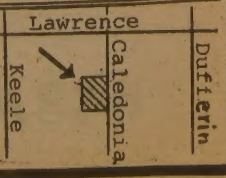
I AM INTERESTED IN THE WATCHMAN SECURITY SYSTEM
PLEASE CONTACT IMMEDIATELY
NAME
COMPANY
ADDRESS
PHONE
TYPE OF BUSINESS: RETAILER □ WHOLESALER □ DISTRIBUTOR □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Jan. 11 - Jan. 22 '82		Special
Vicks cough drops	20x40¢	4.95
Acta throat soothers	20x40	4.75
Bazzooka gum	480x2¢	5.99
Y & S strawberry cigar	48x10	2.89
Y & S strawberry Mr. Chew	48x10	2.89
Y & S twizzler Red & Black	60x10	2.99
Moirs Bag candy	24x25	3.09
Leaf Ball of Fire gum	48x5¢	1.45
Peter Puck	24x25	3.75
Neilson & Rowntree Reg. Choc.	36x40	9.95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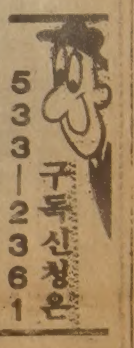
흐뭇하고 여유있고…유쾌한 人間家族으로

웃으면서삽시다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科學部
李光榮 차장
◇文化部
丁 潢 기자
梁 平 〃
李亨基 〃
禹松海 〃
崔成子 〃
◇寫眞部
朴泰弘 기자
張啓文 〃



구독신청은 533-2361

웃음은 최고의 良藥

金二泳교수
漢陽醫大神經精神科

英國신사의 가장큰 要件은 유머감각
개인이나 集團이나 갈등해소엔 특효
중대한 難題도 간단한才談으로 풀려

신사중의 신사로 통하는 영국신사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중에서 가장높게 치는 것이 유머감각이다. 우리나라 말에도『웃는 낯에 침뱉으랴!』는 말이 있지만 동서를 막론하고 웃음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딪칠 때마다 여러가지 심리적 방어기전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이런 방어기전중에는 병적인 것, 신경증적인것도 있으나 이런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성숙하고 건전한 방어기전중의 하나가 유머, 다시 말해서 웃음을 통한 갈등의 해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어느 애꾸눈 정치가가 의정단상에서『현금의 세계정세를 돌아보니…』하고 말을 꺼내자 반대당의 한 의원이『한눈으로도 잘 보이느냐?』고 야유를 했다고 한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요 남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이기 때문에 장내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이때 만일 당사자가 싸움이라도 걸면 의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그런 상황에서 그 정객이 말하기를『그래서 일목요연이란 말도 있는것 아니요!』란 재치로 그 위기를 넘겼다고 전한다.

이런 일화들은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 미국의 링컨 대통령, 우리나라의 李商在선생같은 위대한 분들의 경우에도 찾아볼수 있다.

건강한 웃음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才談의 내용이 그 집단 구성원 상호간에 공통적인 정서의 교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라야한다. 한편 어떤 유머가 충분한 효과를나타내려면 재담을 하는 사람과 그 뜻을 알고 웃을 수 있는 사람과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덩달아 웃는 세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꽉 짜인 상황보다 허름한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가 아무리 곤경에 처해 있더라도 아직 조금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 한편 웃음을 제공한다는 것도 여유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뒤집어 말하면 곤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우스갯소리나 웃음이란 그 각박한 상황을 여유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된다.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들라면 고도의 기계화, 자동화, 분업화를 꼽을수 있다. 자동화가 제대로되려면 한치의빈틈도없는 정확성, 앞뒤가 꽉들어맞는 치밀성, 이들을 뒷받침 할수 있는 고도의 계산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웃음과는 거리가 먼 여유없는 상황이라야 된다는 뜻이다. 한편 분업화가 된 사회에서의 그 구성원은 자기분야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상태가 되기 쉽다.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였을때 그들 사이에 스스럼없이 서로의 감정의 교류를 일으킬수있는 공통의 화제가 궁해지게 마련이다. 쉽게 웃음을 자아내는 분위기로 이끌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미국방송의 코미디의 대부분이 정치문제나 性에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있는것을 보면 이런것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요컨대 자동화, 기계화, 분업화가 웃음이 끼어들 여지를 없애고 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라고 한다. 타인은 적이요 경쟁해야 할 대상이다. 남에 매사에 조급하고 여유가 없다. 유머란 적당히 빈구석이 있어야 웃음을 자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빈 구석이란 경쟁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한편 경쟁사회이기때문에 남의 약점을 꼬집어 내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유머들이 늘어난다.

인간은 자기가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긴장을 느끼고 불안해 진다. 현대사회는 한 인간이 여러가지 모든 분야를 다 알기에는 정보가 너무나 많고 복잡하기가 이를 데 없다. 불안을 조성할만한 여건이 충분한 것이다.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기계화된속에서 원인모르는 미지의 상황이 너무 많고 따라서 인간소외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웃음이란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참 복잡한 國政을 논의하느라고 갑론을박하던중 무던히도 실증이난 宣祖임금께서는 한 꾀를 냈다. 똑같은 생선을 하나는 젖은대로 오성에게 보여주고 그 이름을 알아맞히라고 했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라 오성이 작대기로 꾹꾹 눌러 보니 물이 찍하고 나왔다. 그는『이생선은 찍찍이올시다』하고 임기응변으로 대답했다. 임금이 다시 말린 것을 주고 알아 맞히라고 하니 탁탁 쳐보고나서『탁탁이올시다』하고 대답했다. 임금이 짐짓 노한체 하고『왕을 기만한 자 죽어 마땅하다』면서 기둥에 묶어 놓고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 할말이 없느냐고 물으니 오성은『죽기전에 아들에게 유언이나 하게 해 주소서』했다.

아들을불러주니 오성이 아들에게하는말이『너는앞으로 명태말린것을 북어라고부르면 안되느니라!』하고 훈계를하였다. 그때까지 임금의 어이없는처사에 긴장하고있던 신하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그이후 그렇게도 해결되지않던 논쟁이 쉽게 합의점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웃음에는 카타르시스의 기능이 있다. 아내가 심하게앓고있어서 세상에서 제일하기싫은 설거지를하면서 그 일을하고있는 자신에게 울화가치밀고 있는데 여덟살짜리 아들녀석이『우리아빠 참 불쌍하다!』하는 바람에 둘이 마주보며 한바탕웃음으로 기분전환을했던 일이있다.

웃음의 이런 기능들은 한 개인의 내부에서도 이용되고 집단내의 갈등을 해소할 때도 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웃음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소인배가 하는 우스갯소리는 대개 어느 한 개인의 약점을 꼬집어서 웃기는 경우가 많다. 여러사람의 허황된 웃음을 위해 한사람의 상처가 필요한 것이다. 저질 코미디에서 뭔가 모자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억지로 웃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웃음은 결코 우리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 大人의 유머는 모두가 다 같이 웃을 수 있고 그속에 인생의 예지가 숨어있게 마련이다.

앞서말한 선조임금의 경우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결국 별차이가 없다는것을, 조금만 양보하면 쉽게 사물의 앞뒤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웃음으로 여유를 보이되 남을 아프게 하는 웃음은 피해야한다.

◇세상살이가 각박 할수록 웃음은 良藥이 된다. —河回탈의 「중」의 큰 웃음.

웃으면長壽 高血壓·위장장애등 豫防
입웃음은 本能的·수준높으면 눈으로

「사람만의 特權」科學的으로 분석해본 그룹인터뷰

현대와 같이 웃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도 없다. 눈감으면 코도 베어간다는 치열한 생존경쟁, 기계화에 따른 인간성의 상실, 그래서 인간미가 없고 모든것이 사무적이다. 감정의 소통이 없어 불신만이 커간다. 각종 情報의 홍수속에 인간이 알고 배워야할 일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과밀도시, 대기오염등 각종 공해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등 각종 자원의 부족…. 도무지 여유라곤 없는 세상. 이같은 각박한 세상속에 웃음은 시원한 청량제일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서 행복감 마저 가져다 줄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웃음을 잃고있다. 누구보다 웃음을 찾고 소유해야할 사람들이 웃음을 잊고 있는 것이다.

〈정체〉웃음은 사람만이 갖는 특권이자 본능. 갓난아기가 방글방글 잘 웃는것은 이때문이다. 동물은 웃지않는다. 웃음을 모른다. 그렇다면 웃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가볍게 정해야할 웃음에 심각한 (?) 물음을 던진다는것은 웃기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달나라 여행을 하며 단 하나밖에없는 심장을 떼어 이식하고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아직 인간의 특권이자 본능인 웃음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톨릭의대 생리학교수 金喆박사는 우리가 아직 웃음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실험대상이 사람에 국한 되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동물은 웃지 않는다. 따라서 웃음을 실험하고 연구할 대상동물을 찾을 수 없다. 얼마전 고양이의 웃는 모습이 보도된 일이있다. 실제로 원숭이와 침팬지의 뇌(視床下部)에 전기적인 자극을주어 낄낄대게 할수있다.

그러나 이들 동물의 웃음은 사람의 웃음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金喆박사는 동물실험에서 나타나는 낄낄 대는 웃음소리는 호흡근의 율동적인 변화에 따른 단순한 성대의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같은 의견은 서울대의대 생리학교수 金祐謙박사도 같다. 흰쥐의 두개골 속에 가느다란 전선을 삽입한후 페달을 밟아 뇌의視床下部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도록 하면 흰쥐는 잠자고 먹는일마저 잊고 계속해서 페달을 즐거운듯 밟아 댄다. 전선을 타고 들어간 전기가 쾌락중추 (Pleasure Center)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웃음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는것이 金祐謙박사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뇌의 어느 특정부위를 자극 한다든지 파괴해서 웃음을 자아내게하고 또 멎게한 실험과 증거가 없다는것. 따라서 웃음은 중추신경의 어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관여하는 인간만이 갖는 고등감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종류〉한마디로 웃음이라 하지만 웃음엔 종류가 많다. 즐거워 웃는가 하면 우스꽝 스러워 웃기도 한다. 사교적인 웃음과 실없는 웃음에서 쓴웃음, 비웃음도 있다.

고려병원 신경정신과장 李時炯박사는 그러나 웃음은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입으로 웃는 웃음이고 다른 하나는 눈으로 웃는 웃음이다. 입으로 웃는 웃음은 원시중추가 관여하는 일차원적인것이고 눈으로 웃는 웃음은 고등중추가 관여하는 이차원적인 웃음. 갓난아기와 고급감정에 장애를 일으킨 정신분열환자들이 입으로만 웃고 문화수준이 높을수록 눈으로 웃는 사람이 많은것은 이때문이다.

입으로 웃는 웃음은 본능적인 욕구가 充足된다든지 가능성이 보일때 나타난다. 따라서 입으로 웃는 웃음은 본능중추의 만족과 충족감이 만든다. 이에반해 눈으로 웃는 웃음은 인간의 고등감정이 만들어낸다는것.

서울대의대 정신과 외래교수 李揆東박사는 웃음은 재치 (Wit)와 해학 (Humour) 익살 (滑稽·Comic) 등 3가지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재치는 심리적 긴장의 절약이고, 해학은 감정소비의 절약이며, 익살은 타인의 열등한 사상을 통해 자신의사상을 절약하는 형태의 것이란것. 따라서 익살은 저급한 웃음을, 재치와 해학은 보다 고급한 웃음을 선사한다.

희극보고 不治病 낫는 例도
一笑一少 一怒一老…우울하면 얼굴검어져
억지웃음은 스트레스 加重

〈효용〉『웃으면 웃는 만큼 젊어지고 (一笑一少) 화를 내면 내는만큼 늙어진다 (一怒一老)』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생활에서 웃음만큼 우리의 건강을 북돋워주는 영양제도 없다. 우리말에 「화병」이란게 있다. 화를내면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안되는 일은 누구나가 경험하는일이다. 우리몸은 항상 어떤 일정한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적응 본능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정신과 육체적인 자극, 즉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를 어떤 형태로든 풀고 원상태로 되돌아 가려한다. 李揆東박사는 이같은 균형이 깨졌을때 나타나는것이 바로 신경성 위장장해와 신경성고혈압, 신경성심장병, 신경성두통을 비롯 우울, 히스테리와 같은 신체와 정신및 신경의 「전환반응」이라 설명한다. 웃음은 바로 이같은·스트레스를 풀어 균형이 깨져 나타나는 이들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열쇠가 된다는것.

가톨릭의대 내과 李임교수 閔炳爽박사는 웃음은 때로 명약중의 명약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심한 류머티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었다. 좋은약을 다써보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않았다. 문병차 찾아온 영화인 친구가 보다 못해 영화나보고 소일하라며 희극영화를 몇편 선사하고 갔다. 놀라운일이 일어났다.

환자는 웃기시작했고 웃는동안 아픔을 잊게되었는가 하면 하루가 다르게 급세가 호전된것이다. 한달이 못가 퇴원을 하게 되었다. 웃음이 뇌에 작용, 통증과 깊은 관계를 맺고있는 엔돌핀이란 호르몬분비에 영향을 미친것이다.

웃음을 잃고 항상 우울한 사람의얼굴은 검게변한다. 우울한 감정이 뇌에영향을 미쳐, 피부를 검게하는 멜라노트로핀의 분비를 촉진시키기때문이다.

閔박사는 현대인들에게 고혈압을비롯 동맥경화, 당뇨병, 위궤양등이 늘고있는 현상은 웃음을 잊고 있는데도 하나의 원인을 찾아 볼수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긴장이 연속되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脂肪이 혈액속에 증가한다. 잘웃는 낙천적인 사람들에게서 장수자가 많은것은 이때문이기도 하다.

〈처방〉모든 웃음이 현대인의 적—스트레스를 풀어 주는것은 아니다. 현대인들은 억지 웃음을 웃는 일이 많다. 코미디언과 대중 앞에선 무대의 주인공들의 억지 웃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여준다. 웃으려면 얼굴근육이 움직여야 한다. 억지 웃음을 웃다보면 이 얼굴근육이 쉬 피로하게 된다. 미인대회에 나온 미녀가 대회가 끝난후 사진을 찍으려 할때 웃는게아니고 찡그린상을 짓는 일은 이때문. 다시말해서 의식적으로 웃는 웃음은 스트레스를 오히려 가중시킬수 있다는것.

웃음은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웃어보려는 욕구를 갖고있다. 웃음은 집단사회의 개체 본능이기도 하다. 이같은 인간의 웃어보려는 욕구는 원시사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李時炯박사의 설명.

웃음은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환영의 표현이다. 여성이 남성에비해 잘웃는 것은 이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원시사회에서 남성이 사냥해온 고기를 얻어먹기 위해 웃어보였다.

웃음엔 「문턱」(Threshold)이 있다. 이 문턱은 분위기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긴장을 풀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면 문턱이 낮아진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웃어보려는 욕구가 커져 문턱은 한층 낮아진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웃음이 쉽게 터져 나오는것은 여기에있다. 웃음엔 리듬이있다. 그래서 일단 웃기시작하면 문턱이 뚝 떨어져 입만 뻥긋 해도 마구 웃어댄다.

따라서 재능있는 코미디언은 바로 이웃음의 문턱을 어떻게 쉽게 낮추느냐를 터득한 사람이다. 웃음의 문턱을 바짝 낮추고 어느순간 웃음의 고무풍선을 터뜨릴 바늘을 꽂을때 폭발적인 웃음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李光榮기자】

하르빈한약상사

새해교민께특별봉사

- 20년간 한의사경력(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하르빈한의대학 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본토의 한약사용

서 춘 봉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536-6854(B)
743-0752(R)

한국일보 특집판

우리들의 웃음소리

콩트

아홉번째 맞선을 보는날에 해프닝이…

그녀는 뜻밖에 고향 코흘리게 옥순이

崔一男

『오빠 파이팅』

대문을 나서는 내 뒤꼭지에 대고 누이동생이 구호를 외치듯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어쩌면 이죽거리는 것같기도 하고, 어쩌면 진짜로 성공을 비는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 했으나, 날이 날인지라 범연히 들어넘길 수만은 없었다.

『야, 내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니』

『하여튼 잘 해보라 이거야』

『잘못 하면 어쩔거야?』

『어엉, 맞선 보러 가는 사람이 이렇게 도전적이어서는 안되는데』

『네 차례가 안올까봐 그러니?』

『그것도 있고… 오빠가 한심해서 그래』

『어째서?』

『오늘이 아홉번째지 않아, 맞선 보는거』

순간 나는 약간 참괴한 생각이 들었다.

하기야 내친구 중에는 스물 두번인가 세번을 맞선 본 녀석도 있고, 서른번을 채우겠다고 벼르는 녀석도 있으니까 나의 아홉번은 아직도 가망이 있는지만, 아홉번이라고 못박고 보니 그것도 수월찮은 수였던 것이다.

맞선이라는게 그랬다. 서른이 넘은 노총각 주제에, 갓 까놓은 삶은 계란같은 냄새를 풍기는 애숭이 처녀와, 캐니·로저스나 올리비어·뉴튼·존의 노래가 왕왕거리는 디스코 다방에 앉아 간지러운 수작을 벌일 수도 없고, 팔다 남은 꼽치 모양 잔뜩 오그리고 앉아서, 내 처분만 바란다는 부의한 올드미스를 앞에 놓고 내가 왕창 유쾌한 척 할 수만도 없었다.

어쩌다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여자와 연애 한번 못하고, 어쩌다 노총각으로 느적지근하게 물러 앉아서, 안달이 난 어머니나 고모의 주선으로 맞선행각에 나섰는데 도무지 이 노릇이 신명이 나지 않았다.

일이 일인지라 처음 한 두번은 미지의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이 달콤 새콤 해서, 여자와 마주 앉으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사지가 경직되는 느낌이었다. 입안이 마르고 마주앙을 마셨을 때 처럼 볼이 뜨끈 뜨끈 해지던 것이다. 이 쪽에서 두명 저쪽에서 두명, 우리를 따라왔던 고모나 이모, 뭐 그런 여자들이 전선으로 인사를 나눈 후, 그럼 우리는 이만 일어나시다, 둘이 재미보게. 하는 따위 상투적인 둔사(遁辭)를 남기고 떠나버리면, 나는 나이답지 않게 와락 와락 몸이 떨렸다. 어떤 여자는 그런 나를 빠끔히쳐다보면서, 가증스럽게도 여유 있는 웃음을 흘렸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두번이지, 세번 네번 겪다 보니 이제는 달콤 새콤한 맛도 희석되고, 덤덤거리던 가슴도 훨씬 그 도가 엷어져서, 상습범 처럼 느긋하게 상대방을 자근 자근 해체해보는 여유가 생겼다.

그 때부터였을 것이다. 나는 그 때 까지 나를 다방이나 제과점 까지 안내하던 수행원(?)들을 따돌렸다. 물론 상대방도 그래 주기를 원했다. 어차피 둘이 만나는 것, 시간도 절약하고 숨통 막히는 분위기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서였다.

그 편이 오히려 나았다. 고급 다방이나 제과점 카운터에서 이름을 대고 상대방을 찾거나, 미리 와서 기다리는 과정이 약간 서먹하기는 해도, 그건 그다지 문제가 되지않았다. 대개는 그래도 남자꺽지라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아량을 보였는데, 맞선 볼 여자는 입구쪽에 나타나자마자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면 몰라도 친구들과 어울려, 야 나 맞선 보러간다. 시시한 회사원이라는데 어떤 작자인지 궁금해, 트릿하게 나오면 확 할켜줄까. 하고 깰깰 웃던 후닥빠 여자는 맞선 보러 올 때는, 요게 요조숙녀 처럼 몸을 잡는다는걸 나는 알고 있었다. 다방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보폭(步幅)을 죽이고, 눈을 약간 아래로 깔며 가담항게도 다방출입을 처음 하는 사람모양 멋쩍어하며 잠깐 홀 안 손님들에게 시선을 던진다. 그것은 혹시 미리 와서 자기의 거동을 살피고 있을 지도 모를, 상대방을 의식한 시선이다. 히힘 내가 그걸 모를까.

나는 이 때 벌떡 일어서서 마침 카운터 쪽으로 가는 여자를 정중히 나꿔챘다.

『제가 이동식입니다』

여자는 어머나 하고 가볍게 입을 달싹거린다. 여자가 카운터에서 사람을 찾는 쑥스러움을 미처 맛보기 전에, 내가 나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맞선을 보면서 나는 내가 차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맞선의 한가지 장점은, 서로 먼저 차는 입장이고 설혹 차였다 하더라도 먼저 찼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므로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않는다는 일이다.

다섯번째엔가 만난 여자는 내가 먼저 찬 쌔이다. 나는 식구들에게 말했다.

『여자 낯짝이 어찌 오징어 처럼 앞뒤가 없이 한없이 납작하기만 하니』

그랬더니 상대방이 말하더라는 것이다.

『무슨 남자가 나이도 젊은데 얼굴이 썩은 호도알 처럼 골이 몇줄씩이나 패었니』

나는 여동생의 「아홉번째지 않아, 맞선 보는거」하는 말을 떠올리면서 약속장소인 제과점 문을 열었다. 평일 오후라서인지 손님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홀 안을 휘 둘러 봤으나 그럴만한 여자는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싶어, 나는 빈 자리로 가서 앉으며 우유 한잔을 시켰다. 미리 와서 상대방 거동을 관찰하는 맛, 이것은 내가 맞선을 통해 얻은 것이다.

약속시간에서 오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여자가 제과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중키에 찌리 찌리 파머… 고모가 얘기해준 그 여자에 틀림 없었다. 이런 장소에 처음 출입하는 사람 처럼 멈칫거리며, 잠깐 홀 안 손님들에게 시선을 던지는 품이 갈 데 없는 나의 맞선 상대였다.

나는 주저할 것 없이 일어섰다.

『제가 이동식 입니다』

내가 여자를 부축하듯 하면서 말하자, 여자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더니 가볍게 목례를 했다.

자리에 앉아서도 여자는 고개를 들어 이따금씩 나를 올려다 보았다. 여자가 그런 동작을 세번쯤 되풀이 했을 때였다. 여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갑자기 피하고 웃었다. 당돌한건 나였다. 웃다니. 여자가 먼저, 그것도 잔망스럽게 피 하고 웃다니? 이건 나의 맞선 철학에는 없는 행동이었다. 내가 가성(假聲)으로 하하하 웃으며, 일부러 우스개 소리를 해도, 두 손을 꼼지락거리며 애써 웃음을 참아야 할 여자가 전방지게 피 웃다니?

나는 약간 멋적고 화가 났다.

『웃으시는군요. 내 얼굴에 파리똥이라도 앉았읍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혹시 동산리 출신 아니세요?』

『네?』

나는 깜짝 놀랐다. 동산리는 바로 내 고향이었다. 이 여자가 그걸 알다니.

『맞죠? 저도 동산리가 고향이에요. 옥순이라고 기억 안 나요?』

『그래요? 옥순이? 옥순이? 혹시 감나무집딸?』

나는 열심히 타임 머신을 뒤로 돌렸다. 그러자 늘 콧물을 흘리던 예닐곱살짜리 소녀가 밭두렁에 앉아 있었다.

『하, 이거, 얼마만입니까?』

『맞아요』

『이십년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날 알아봤죠?』

『제친구 오빠가 동식씨를 만나보라고 했을 때까지는 물론 몰랐죠. 그런데 여기 앉고 보니까 이상하게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여름이면 개구리 모양 벌거벗은 배를 내놓고 다니던 동식씨의 배꼽에 노상 참외씨 한 두개가 붙어있던 것도 기억 나요. 배꼽이 크셨네요. 호호호』

『자기는, 내가 따끈 진달래를 먹고 배탈이 나서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을 때 깨낀 하얀 궁둥이가 인상적이였지. 핫핫핫』

『어머, 못하는 소리가 없어』

우리는 제과점을 나왔다. 갑자기 이루어진 재회, 그리고 갑자기 당겨진 친화력(親和力)이, 두 사람을 밍근한 제과점에 잡아 앉히기에는 너무 강했던 모양이다.

두 사람은 이웃 술집으로 향했다. 옥순이도 서슴지 않고 따랐다.

술이 취하면서 나는 일부러 억지를 부렸다.

『옥순아, 지금부터 너를 너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시시하게 맞선 따위나 보아 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니?』

『그러는 자기는?』

『핫핫핫. 피장파장이라 이거지. 좋아. 오늘 맞선은 없었던 걸로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뭘?』

『연애를』

『엿장사 맘대로?』

『핫핫핫. 그렇지. 엿장사 맘대로지』

나는 슬며시 옥순이의 목을 껴 안았다. 그녀는 거역하지 않았다.

〈한국창작문화상수상작가〉

그림·權大雄

웃으면서 삽시다

미워하는者 앞에서 웃어라… 賢明해진다
큰 첫웃음보다 마지막 微笑가 훨씬좋다
女性의 꾸민웃음은 男女간의 浪漫 망쳐
가장멋진 웃음은 "후훗" 끝을삼키는 웃음

웃음小辭典

O웃음 語錄

▲미소를 포함하지 않는 眞理는 진리가 아니다.(프리드리히·니체)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권리다. 그러므로 인간은 웃음을 허투루 낭비해선 안된다.(라블레)

▲진짜 웃음을 줄 아는 사람들은 知的인 사람이다. 진짜 웃음은 知的인 사회속에서만 가능하다.(앙리·베르그송)

▲웃는것은 자주 하나의 쇼다. 정말 우스워서 웃기보다 자기 존재를 자신과 타인에게 확인하기위해 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버나드·쇼)

▲적절한 시기에 웃는웃음, 그것은 會話가운데 맛난 음식이다.(W·해즐리트)

▲그 흔한 안수와웃음은 실상단순하고꿈섬실한것이다.(T·S·엘리어트)

▲나는 이제껏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본 일이없다. 왜냐하면 미래의 史家들을 속이고 싶지않기 때문에.(J·지온)

▲웃음은 완전히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상태에서만 진짜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웃음을 웃는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므로.(베르그송)

▲웃음이 있는곳에 페이도스가 있다.(위고)

▲웃음은 감정의 충격을 막는 방패다. 웃음은 무의식의 보호자며, 두려움과외로움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맡는다.(프로이트)

▲웃음은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있다. 웃음은 타인으로부터의억제감을풀어주며, 자기자신의인격을보호해준다.(T·메이예르)

▲일종의 가면, 그 것이 바로 웃음이다. 그것은 감동을 감추고, 서먹함을 감추고, 괴로움을 감추는 하나의 벨브역할을 한다.(T·메이예르)

▲만족한 웃음은 집안의 햇빛이다.(대커리)

▲인간의 웃음은 하나님의 滿足이다.(J·와이즈)

▲진정 즐거워서 웃는것은 좋은 일이다. 지루하기가 사람들을 간질러서 웃게할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행복의 도구다.(J·드라이든)

▲울어보지 않은 젊은이는 바보며 야만인이다. 웃지않는 늙은이도 역시 바보다.(G·산타야나)

▲웃으라. 그대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웃으라. 현명해지리라.(마르티알리스)

▲반역자는 진정으로 웃지못한다. 약탈자도·웃지 못한다. 그들은 웃음에 대해서 조차 반역한다.(칼라일)

▲우는者와 웃는者의 차이는 별것 아니다. 우는者는 웃는者보다 훨씬빨리제 자리를 찾아갈수있다.(J·지로두)

O속담에서

▲웃음은 이빨을 깨끗하게한다.(앙골라속담)

▲날씨가 좋아 잔도 웃는다만 차가운 頂南風에 잇몸이 그을린다.(쓸데없이 농담하며 잘 웃고하는 사람을 경고하는 우리나라 속담)

▲그 웃음소리와 웃는 표정으로 그 사람이 현명한가 또는 어리석은가를 알아 낼수 있다.(英國)

▲자기 자신에 대해 비웃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英國)

▲어리석은 이는 너무 자주 웃는다.(中國)

▲최초에 웃는 큰 웃음보다는 마지막에 짓는 미소가 훨씬 좋은 것이다.(英國)

▲너무 많이 웃으면 눈물이 나게 마련이다.(너무 시끄럽게 기뻐하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우리나라 속담)

▲언제나 잘 웃는 사람은 속이 없는 사람이다.(프랑스)

▲비바리(처녀)는 말똥만 보아도 웃는다.(우리나라)

▲사춘기의 아가씨는 젓가락만 보아도 웃는다.(日本)

▲미소짓지 않는 얼굴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장사를 해선안된다.(中國)

O작품중에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후 첫 웃음을 웃을때 그웃음은 수백 수천조각으로터지 바게퍼져나간다.(동화「피터·팬」)

▲여성의꾸민웃음, 또는 방정맞도록 큰 웃음만큼남녀관계의 낭만을 망쳐 놓는 일이 없다.(오스카·와일드의「쓸데 없는女子」)

▲빗대어 희롱하는 웃음은 일을 그르칠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갈 바를 해치고 만다. 자신의 氣運을 보존하려면 빗대어 희롱하는 웃음을 웃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近思錄」)

▲인생이·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웃음에 대해 관심을느끼는법.(빅토르·위고의「바보年代記」)

▲어리석고 무례한 사람들은 자주 크게 웃어대지만 조용히 웃을줄은 모른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때때로 조용히 웃음을 알지만 결코 커다랗게 웃지않는다.(체스터필드의「아들에게 보낸 편지」)

▲이세상이 눈물의 골짜기라면 조용한 웃음, 미소는 거기에 걸리는 아름다운 무지개다.(L·트리의「옛 뜰」)

▲여기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슴속 깊숙한데서 솟아나오는 한 숨을 짓는다.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이들을 위해선 활짝 웃고 미소짓는다.(바이런의「토머스·무어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순수한 미소속에 깃들어 있다. 조용하고 순수한 웃음속에.(디킨즈의「크리스머스·캐럴」)

▲가장 멋진 웃음. 그것은 후훗하고 끄트머리를 꿀꺽 삼켜버리는 웃음. 지저분한 감정의 꼬리를 이성의 냉철한 칼로 끊어버리는 웃음. 餘音을남겨 예술적 향취가 그윽히 풍겨진 웃음.(金來成의「失樂園의 별」)

▲웃음은 슬픈때를 위해 있는것이다. 울음은 기쁜때를위해 있는것이다.우리는 인생이 슬프기 때문에 웃고살라고 말하는것이다.(金泰吉의「웃는갈대」)

▲가장 불행해보이는 백치나 정신병자가 저렇게웃고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그 까닭을 아는사람은 깨친자다.(李御寧의「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때」)

▲가장 훌륭한 웃음. 가장좋은 웃음. 그것은 날쌔고 부드럽고 민감한 웃음. 생각에 잠긴듯한 웃음.(로렌스의「날개 돋친 뱀」)

▲나는 호도알속에 가득찰 만큼의 웃음만 있으면 좋다. 웃음은 작아야 한다. 작은 웃음일수록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간직하고 있다.(하인리히·뵐의「아홉시半의 撞球」)

▲웃음은 이상하고 수상하고 잘 모르는것에 대해 가장쉽게 응답할수있는 현명한 대답이다.(멜빌의「모비·딕」)

▲누구나 웃음으로 뭇사람을 구별할수 있다. 네가 어떤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도 그사람의 웃음을 좋아한다면 너는 확신을가지고 그사람을 사랑해도좋다.(도스토예프스키의「死者의 집」)

▲때를 못 맞춰 쓸데없이 웃는 웃음은 위험한 惡行이다.(메난드로스의「一行詩」)

▲만일에…하는 假定과 웃음보다 값싼 것은 없다.(스위프트의「수면에 대해」)

▲너무 많이 웃는 자는 바보이고, 너무 웃지 않는 자는 늙은 고양이다.(풀러의「金言集」)

▲우리가 웃으려면 우선 먼저 울어야 한다. 슬픔과 비애속에서 자주 깨닫는바가 있고, 그 깨달음을가진 속에서 따뜻한 溫情과 寬容을지닌 생활철학의 너털웃음을 웃을수 있다.(林語堂의「生活의 發見」)

▲누가 웃음과 울음을 구분하려 하는가. 웃음과 울음은 똑같이 감각의 수레바퀴를 돌리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웃음은 바람의 힘에 의해 감각의 바퀴를 돌리는 것이고, 울음은 물의 힘에 의해 바퀴를 움직이는 것뿐이다. 저기다가 또 그 둘은 서로자주 자리를 바꾸어 인간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뿐이다.(O·홈즈의「아침식탁의 독재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6>

朴婉緖 作
金光培 畵

한옛날에 ⑥

누구나 배불리 먹을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자마자 곧 허헛해했다. 어른들은 그래도 체면이라는게 있어서 제몫의 밥 한그릇을 비우고는 남기기가 뭣해서 억지로 다 먹은척이라도 할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헛헛증은 적나라했다.

끼니를 못참고 걸근대다가 끼니때가 되면 남의 밥그릇까지 탐내는 문자그대로 아귀(餓鬼) 다툼이 벌어졌다.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진 아이들은 몸은 비쩍마르고 배만 맹꽁이처럼 불렀다. 수지도 오목이도 그런 아이들이었다. 이들 자매는 그래도 이집 군식구들중에선 가장 가까운 외손녀들이어서 외할머니가 끼니외에도 구미구미 주전부리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빠진 허기증은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하면 더했다.

남편을 졸지에 잃은 슬픔과 수많은 비명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못한 한씨댁은 아이들을 돌보는일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애정의 공백상태가 수지와 오목의 허기증을 곱절로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난리가 나면 어른은 배곯아 죽고 아이들은 배 터져 죽는다더니…』

어른들은 끼니때마다 게눈 감추듯이 제 밥그릇을 비우고 어른 밥그릇을 넘보는 아이들을 이렇게 개탄하면서도 몇숟갈의 밥을 자식들을 위해 덜어주는걸 잊지않았다. 그러나 수지네삼남매에겐 그렇게 해줄 어른이 없었다.

맏이인 수철이는 이미 중학생이고 또, 자존심이 대단한 소년이어서 이 까닭모를 아귀다툼에서 초연할수가 있었다. 그러나 초연할수있는게 고작일뿐 누이동생들을 돌볼만하진 못했다. 돌보기는커녕 걸신 들린 누이동생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누이동생들을 미워했고 어떻게든 못본척 피하려고만들었다.

자연히 어린 수지와 오목이가 서로 의지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허기증을 다스리는 방법은 둘이 전혀 달랐다. 수자는 밥이나 군것질을 될수있는대로 아껴가며 오래 먹음으로써 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즐기려들었고 오목이는 눈을 까뒤집고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고나서 남의 것까지 빼앗아 자기 뱃속에 양껏으로 많이 처넣는 것을 수로 삼았다. 오목이의 이런 그악스러운 허기증에 가장 많이 당하는건 수지였다. 눈 깜빡 할새 제 밥그릇을 비운 오목이는 수지의 밥그릇에 코를 박았고 하나씩 나누어준 찐고구마도 막무가내 둘을 먹으려들었다.

어른들은 자기나 자기 아이가 오목이에게 빼앗기지않기 위해서도 수지가 빼앗기도록 부추기었다.

『세상에 수진 착하기도 하지. 동생하고 나눠먹는 것 좀봐』

어른들은 이렇게 수지가 오목이한테 빼앗기는 것을 신통한 재롱보듯이 즐겼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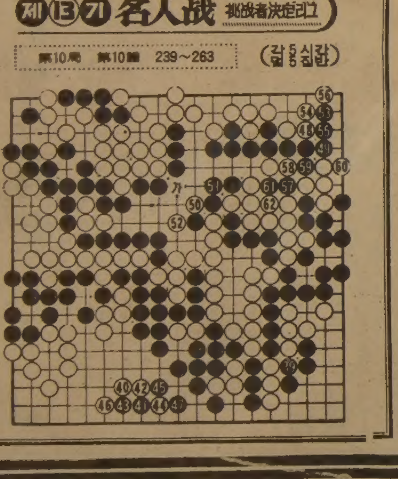
『수지 좀 봐라. 두살 터울밖에 안되는 동생한테 언니 노릇을 얼마나 잘하나. 기특하고 앙징맞기도 하지』

이렇게 자기 자식을 타이르는데 수지를 흉내 본보기로 삼기도했다. 수지는 보통 아이였다. 갑작스러운 애정의 공백상태에서 오목이와 마찬가지로 심한 허기증을 앓고 있는 보통 아이지 어른들이 추켜세우는 것처럼 특별히 착한 아이가 아니었다. 보통 아이이기때문에 어른들이 만들어준 착한 아이 노릇을 그만둘수도 없었다. 수지는 마치 몰이꾼에게 몰리듯이 착한 아이 노릇에 몰리고 있을 뿐이었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第10譜 239~263 (갑5십갑)



白(6段) 徐能旭〈0勝2敗〉
黑(7段) 徐奉洙〈1勝1敗〉

黑39의 가일수는 말할것도 없이 黑이 승리를 확인한 수이다.

그러나 물론 白은 여기서 항복할수는 없는일. 徐6단은 좌우간 미개척지인 하변을 白40으로 확보했다. 현시점에서 최대의 곳이다.

黑41이하47까지 필연이라 보고 여기다 약25집의 영토를 마련한것은 여태까지의 전투에서 잃은 손실을 어지간히 보상할 만한 것이다.

그리고 盤面은 끝내기단계. 두棋士는 격전후의 휴식이라도 취하듯이 솜을 돌리며 영토의 구획을 정리한다.

白48이 큰끝내기인가 하면 50에서 52가 또 최대의곳. 徐6단은 부지런히 집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黑도 53·55가 좋은수순. 다음57·59가 흑이 당하는 맹점이었다.

黑, 마침내 던지다

얼핏보면 이런수는 공연한 보태주기같지만 실상 이경우 절묘한 끝내기였다. 白으로서는 심사숙고를 요하는 마당인데 徐6단은 섣불 白60으로 내려서고 말았다. 60으로는 61자리에 잡아두는 것이 正手지만 黑60이면 건너가게 되고 따라서 白「가」에 끊는 수가 곤배로 된다. 白60은 여기까지를 본 최대의 저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은 黑의 무서운함정을 미처 깨닫지못했다. 이순간 黑61로 키워죽이고서 63을 57자리에 먹여쳐서 白은 만사휴의. 徐6단은 어차피 10집정도 부족하여 패국을 자인하던 참이지만 중반의 대착각으로 60까지의 白돌들이 떨어지자 순순히 돌을거두었다. 어떻게 되는가는 독자들이 풀어보실것. 63…57

【一九】

YMCA겨울프로그램안내 (1월～3월)

문의처 : 토론토 코리안 YMCA 총무 김창열 536-1166

〈토론토토요한글학교〉

시간	프로그램	장소	회비	비고
오전 오후 10:30～1:00	토론토한글학교	Bickford Park고교3층 777 Bloor St. W.	무료	유치반－김진수선생 초등반－김정숙선생 중등반－조인숙선생
10:30～1:00	토론토영어학교	〃	〃	기초반－최기선선생 초급반－김정지선생 중급반－정호영선생
12:00－2:00 (개인지도)	바이올린교실	West End YMCA 15 Robina Av.(3월이전) 931 College St.(3월이후)	$45	이진화 선생
오후 2:00～3:20 3:30～4:30	미술교실A B	〃	$30	문안나 선생 정 선생
2:00～3:20 3:30～4:30	무용교실A B	〃	$30	김정숙선생
2:00～3:20	기타교실	〃	$30	권혁일선생
2:00～4:00 (개인지도)	피아노	〃	$45	노경심선생
3:30～5:00	태권도	〃	$30	이태우4단

※한집서 두어린이 이상, 또는 한 학생이 두과목이상 선택시는 $5을 할인함

〈웨스톤수요한글학교〉

시간	프로그램	장소	회비	비고
오후4:30～7:00	웨스톤한글학교	Daystrom공립학교 25 Daystrom Dr.	무료	유치반－오정숙선생 초등반－김정숙선생 중등반－최춘자선생 고등반－이영희선생
7:00～9:00	웨스톤영어학교	〃	〃	기초반－최춘자선생 초급반－최기선선생 회화반－Hope Ko

〈일반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장소	회비	비고
매주목요오후 6:00～8:00	Y합창단	West End YMCA	〃	지휘자－안병원선생 반주자－애그너스 킴
1월29일(금)7시	와이즈멘즈 클럽(알파)	송인문와이즈멘댁	〃	회장－천중환 부회장－나상선
1월30일(토) 오후7시	〃 (베타)	홍승규와이즈멘댁	〃	회장－이석현 부회장－홍승규
매월첫일요일 오전7:00～8:30	성서연구회 (구약개론)	West End YMCA 이사실	파트락 써퍼 월회비 $2	강사－조남유목사
1월30일(토) 오전8:15～오후5:30	초보자스키강습	Snow Valley 스키장	성인 $35 어린이 $31	버스·스키전세·레슨 리프트포함 (12세미만)
1월30일(토) 오후6:00～9:30	폭맨스 기도자 강습회	West End YMCA 15 Robina Ave.	$5	강사－김용순선생
1월20일(수) 오후6:00～8:00	한인Y 이사회	College Inn 940 College St.	식대 $2	이사장－전택균 부이사장－구상회 부이사장－김순창
2월20일(토) 오후4:00～6:00	신회관개관기념	West End YMCA 931 College St.	무료	태권도사범·전불 시
오후1시～오후5시	이민봉사센터	〃	〃	3년미만 이민자 상담·안내·봉사

서울驛앞은「非違의廣場」

택시잡이 · 야바위꾼 · 誘客행위 · 獻血강요 · 바가지商魂

上京길 봉변…被害심해

首都관문 먹칠 公安員등 못본채

수도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앞광장에 질서가 사라져버린지 오래다. 돈받고 택시먼저 태워주기, 자가용영업행위, 주간지강매, 사창가유객행위, 코피값 바가지씌우기, 헌혈강요, 야바위짓들이 제 멋대로 날뛴다. 그러니 서울을 처음찾는 지방사람들이 봉변을 당하게 마련이다. 봉변을당한 지방사람들이 서울에는 사기꾼과 협잡배들이 들끓고있다고 불평해도 변명할 말을 찾기가 어렵다. 수도 서울의 체면을 위해 金浦공항에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이 서울역앞에도 가봐야할듯 하다.

기차를타고 서울역에 내려 제일먼저 닥치는봉변이 돈받고 택시먼저 태워주기. 역앞광장 택시정류장에는 20여m 길이의 승강대가 마련돼있어 열차가 도착한뒤 장사진을 이룬다. 택시는 줄을이어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지만 대열은 좀처럼 줄지않는다. 승강장 출구에있는 정리원들이 뒷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돈을받고 택시를 먼저 태워주기 때문이다.

9일낮12시. 서울역택시정류장엔 공안원 1명, 교통경찰 1명이 나와 정리를하고 있었지만 7~8명의 정리원들은 손님끌기에 바빴다. 이들은 짐을든 손님이 나타나면 빼앗다시피짐을들고출구로들어가 택시에 손님을 태우곤 손을 내밀었다. 의아한 손님이 동전1~2백원을주면 택시문을 잡은채 버티고있다가 5백원이나 1천원을주면 문을 닫아주었다. 정리원들은 아무데도 소속되지않은 사람들로 공안원의 묵인하에 승차질서를 잡는다는 핑계로 이같은 비위를 자행하고 있는것이다.

서울銅雀區黑石洞 38의31 김형태씨는 며칠전 친척을배웅하고 돌아가는길에 이같은 광경을 목격, 정리원에게 따지자 『급히 병원에 가는사람이어서 봐줬다』고 말했다면서 한국일보社에고발해왔다.

자가용 영업행위도 톡톡히 재미를 보고있다. 광장 주차장에는 항상 20~30여대의 자가용이 주차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것. 비오는날이나 새벽, 또는 밤늦은시간에는 택시의 배정도 요금을받고 태워다 주고있다. 지방여행을 하고 돌아온 金李植씨(40)는 친구와의 약속시간을 지키기위해 할수없이 光化門까지 2천원을주고 자가용을 타고왔다.

어수룩한 사람들을 울리는 게 야바위꾼들. 3~4명을 1개조로한 야바위꾼들은 주로 서울역앞남쪽 뉴타운다방에서 葛月洞사이에 진을치고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있는데 매일 3개팀이 나와있다. 9일에도 뉴타운다방앞과 태화문신약국 3군데에서 빨간색 표시가된 딱지1장등 3장의 딱지를 섞어 손님이 표시된 딱지를 맞히면 건돈의 2배를 준다며 행인을 유혹, 같은편끼리 돈을주고받다 행인이 이노름에 참가하면 교묘하게 속여 돈을 긁어낸다.

지난 7일상오11시 金모군(19·전북裡里市南中洞2街)은 시골에 내려가려고 서울역에 왔다가 이들의 마수에 걸려 2만원을 뜯겼고, 지난해 12월14일엔 金成圭씨(32·서울道峰區三陽洞)가 야바위를 구경하다 반강제로 1만원을 잃었다. 주변의 한분식점 종업원에 의하면 이들에게 당하는피해자가 매일 30~40명은 된다는것.

주간지, 슈크리너, 라이터의 강매행위도 서울역을찾는 사람들을 짜증나게한다. 슈크리너를 파는행상들은 지나는 행인의 바지자락을잡아채 손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두를 닦아주곤 2백원짜리 슈크리너를 떠맡기고 이를거부하면 갖은 욕설로면박을 주기도한다.

구두뒤축 수선공들도 시민을 괴롭힌다. 이들은 구두뒤축을 갈아끼우는 이 삐딱하게 닳은 사람을 골라『단돈5백원에뒤축을바꿔붙이기만하면오래신을수있다』고꾀어구두뒤축을5~6천원을받고갈아끼워주고있다.

서울역 주변의 다방도 바가지요금으로 시민들을 불쾌하게 한다. 『코피3백원』이라고 써붙여놓고도 그냥코피는 없다며 프림을 넣은코피를 4백원에 팔고 있다. 더구나 이들 다방들은 음악을 귀청이 터지도록 크게 해놓아 손님들이 차만 마신뒤 더이상 소음을 참지못하고 나가게 하는 숫법까지 쓰고 있다.

또 東大邱발 특급, 釜山발 우등열차등이 도착하는 새벽 4시이후와 光州발 새마을열차등이 도착하는 밤10시이후 서울역일대에는 陽洞과 道和洞등 유락가에서 나온 펨프들이 활개친다. 이들은 지하철역과 서울역 광장에까지 진출, 행인들의 소매를 잡아채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않고있다. 【方政俊기자】

◇꼬마는「營業」방해 서울에 처음온 젊은사람들을 찌어 주머니를 터는 야바위꾼들. 바람잡이가 야바위를 구경하는 어린이를 끌어내고있다. 【9일낮 12시 서울역 남쪽에서】

倒產社長 한가족 同伴자살

債臺빚고민 부인·3男妹와 연탄피워

싱크臺회사장…債權者가 발견

◇3子女가 무슨罪가 동반자살한 尹씨일가족.

싱크대제조회사를 경영하다 수억원대의 빚을진 회사사장이 부인, 자녀등 일가족 4명과 함께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했다.

9일 상오2시30분께 서울道峰區雙門1洞96의3 尹永老씨(47)집안방에서 尹씨와 부인徐慶子씨(44), 장녀寅曾양(20·재수생), 2녀賢曾양(17·j여고2년), 장남昊鎭군(15·H고1년)등 한가족 5명이 연탄화덕 2개를 피워놓은채 숨져있는것을 채권자 李天根씨(26·서울江南區三成洞264의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李씨는 이날 새벽2시께 1천5백만원의 빚을 받기위해 또다른 채권자인 배기호씨(46·서울江東區蠶室6동장미아파트8동607호)와함께 尹씨집으로 갔는데 대문을 열어주지않아 담을넘어들어가보니 尹씨일가족이 모두 숨져있었다는것.

尹씨의형 明老씨(53·은행원)에 의하면 숨진 尹씨는76년 경기半月공단에서 싱크대제조회사인 주식회사 三協을 차려, 경영해오다 지난해5월 경영부실과 자금난으로 문을닫고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아왔으며 은행대부금8천여만원과 사채등 2억5천여만원의 빚을져 평소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숨진尹씨는 형 明老씨에게 남긴 유서에서 『나만 죽으면 자식들이 부모없이 구차하게 살아갈것같아 함께 데리고간다』고 말했고 회사간부와동업자들에게는『당신들이 회사명의로 은행에서대부를 받아가로챘고 수금한돈도 제대로입금시키지않아 결국공장이 쓰러지게됐다』는 말을남겼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零下의 걸인에 보금자리

말단公務員의 善行

南서울우체국 10급기능직 韓輝準씨

원데이 스토리

陸橋위서구걸…이젠 親舊

봉급털어 산 동네에 房

이불에 도배까지·비번날돌봐

지난6개월동안 서울 麻浦區阿峴洞 육교위에서 돈통을 내놓고 추위와벗고에 떨며 쭈그리고앉아있던 걸인 姜한창씨(64·주거부정)의 모습이 요즘엔 보이지 않는다. 수입이 좋은 다른 육교로 옮겨간것이 아니라 지난해 연말 이 육교를 지나가던 한청년에 의해 阿峴洞 산꼭대기의 한평짜리 월세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이 단칸방으로 옮겨진 후 8일 만에야 영양실조로 혼미했던 의식을 회복하고 자신에게 방을얻어준 사람이 돈많은 독지가가 아니라, 월급13만원을 받는 南서울우체국 10급기능직 韓輝準씨(28)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마련해준 방은 재개발지구내의 한평짜리였지만 깨끗이 도배가되어있었고, 姜씨는 새 이부자리속에서 연탄불의 온기로 천당과같은 따스함을 누릴수 있게되었다.

韓씨가 이 육교 위에서 추위에 떨며 앉아있는 姜씨를 처음목격한 것은 지난해 12월 초. 姜씨는 몸이 야위어 사지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으나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韓씨는 인기척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姜씨에게『며칠 후에 다시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韓씨는 12월분 봉급 13만원을 몽땅 털어넣어 阿峴洞 산 꼭대기에 월세방 한칸과 연탄, 이부자리, 쌀등을 마련해 놓은 후 12월28일 약속대로 이 육교위에 다시 나타났고, 姜씨는 그때까지도 돈통앞에서 떨며 앉아있었다. 그때 30대 걸인 1명이 더 늘어나 姜씨옆에 앉아있었다. 韓씨는 이 걸인 2명을 목욕탕으로 데리고가 손수 몸을 씻긴 후 자신이 마련한한칸방으로 옮겼다.

그후 韓씨는 비번날이면 阿峴洞 산꼭대기로 찾아가 이들을 보살폈으나 이름을 알수없는 30대걸인은 거리에서 얻은 지병을 이기지 못해 끝내 숨지고말았다. 의식을 회복한 姜씨는『나를 도와준 韓씨 자신 역시 무척 가난한 사람이라는사실에 놀랐다』며 울었다. 죽고『그리고 살아난 두 걸인이 앉아있던 阿峴洞 육교위에는 오늘도 무심한 행인들의 바쁜 걸음들이 오가고있다. 【朴珍列기자】

◇8일하오阿峴洞산꼭대기로 姜씨(右)를찾은 韓씨가 姜씨를 부축해서 걸음연습을 시키고있다.

惡德택시운전사 拘束

輪禍입힌 女高生싣고다니다 버린

서울 江東경찰서는 9일서울4파1928호 포니택시운전사 朴祀松씨(33·서울東大門區徽慶洞14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朴씨는 8일하오 2시20분께 서울江東區 蠶室6洞 감남제일교회앞 횡단보도에서 길을건너던 李惠敬양(17·영동여고2년)을 치어 중상을 입힌뒤 李양을 택시뒷좌석에 싣고 1시간동안 시내를 돌아다니다 하오3시20분께 사고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서울江東區梧琴洞557 야산기슭의 눈밭에 버리고 달아났었다.

朴씨는 사고를목격한 삼경교통소속택시운전사 河奉男씨(29)의 신고로 9일새벽1시30분께 집에서 붙잡혔다. 한편 전치 3개월의중상을입은 李양은 오토바이를타고부근을지나던 崔在春씨(39·서울江東區梧琴洞188의39)가발견, 병원에옮겨치료를받을수있었다.

빚·不渡30억臺 회사社長 잡혀

2년6개월만에

5억여원의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은행빚등 26억원의부채를 지고 달아났던 제약회사사장이 2년6개월만에 붙잡혔다.

서울永登浦경찰서는 9일 朴炯瑩씨(42·서울江南區青潭洞삼아아파트417)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朴씨는 永登浦區文來洞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지난79년6월21일부터 10월사이에 상업은행新設洞지점발행 당좌수표 5억8천9백만원 상당을 부도낸것을비롯 은행부채 13억원, 약속어음2억원, 세금미납액 10억원, 납품업체 미불금 5천만원등 모두26억여원을 갚지않고달아났었다.

애인親舊 죽인협의 20代殺人강도 自首

【水原=一點】경기도 華城경찰서는 9일 강도살인용의자로 2백30일동안 수배를받다 자수해온 張基雲씨(26·平澤郡振威面下北里126)를 강도살인혐의로 구속했다.

張씨는 지난해 5월23일오 4시께 華城郡烏山邑 모회사에 근무하는 애인 張모씨(29)를 만나러왔던 인헌회양(23·서울東大門區面牧洞)을 인근 딸기밭으로 꾀어 욕을 보이려다 이를 거절하자 목졸라 숨지게한뒤 자살로위장키위해 인양의 손목에 손목시계를 훔쳐 달아난후 혐의를 받고있다.

覆面한 5人組 훔친차로 強盜

8일하오 8시35분께 서울江東區吉洞山36의3 백조의상실(주인 具滋任·여·28)에 5인조복면강도가 들어 주인 具씨의목에 칼을들이대고 코트속에있던 현금 6만3천원을 털어 달아났다.

서울2마28××호 마크Ⅳ승용차를 타고온이들은15분뒤 1㎞가량떨어진 서울江東區千戶1洞18의181 金明淑씨(25·여)의 구멍가게에도 침입, TV를 보고있던 가족3명을 과도로위협하고 현금 2만5천원, 카라멜빵등 3만원어치의 금품을뺏은 뒤 승용차를 千戶로터리에버리고 달아났다.

光州·美산안토니오市 姉妹결연

商工人團 30여명 訪美

金良培 시장도

金良培 光州시장과 光州市상공인단 30여명은 오는 2월4일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인 미국의 산안토니오市를 방문한다.

光州市는 지난해 12월말 강혜수 총무국장을 산안토니오市로 보내 자매시 조인에 관한 협의를 끝냈는데 光州 상공인단의 방문에 뒤이어 산안토니오市 상공인들도 오는 3월초 光州市를 답례차 방문할 예정이다.

光州상공인단은 이번 방문중 자유무역항인 산안토니오市에 한국자활부과 생산공장을 설립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양도시간의 각분야에 걸친 교류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등 활동을 벌이게되며 귀로에는 프리오市와 남출신동포들과 간담회도 가질예정이다.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하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883-9407
●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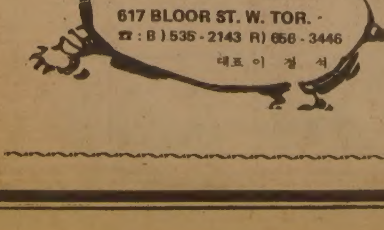
초보자 YMCA스키강습
때 : 1982년 1월30일(토)
오전8 : 15~오후5 : 30
행선지 : Snow Valley 스키장

회 비 :	성 인	어린이 (12세미만)
버스만이용	$10.00	$ 9.00
리프트만	11.50	8.50
스키전세만	9.00	9.00
레 슨 만	5.00	4.50

※전체이용 성인 $35, 어린이 $31
문의나 신청은 536-1166 미스터 김(YMCA)에게 해 주세요(모집인원 : 선착순 약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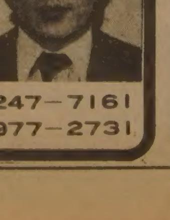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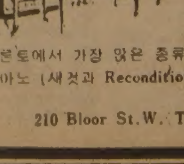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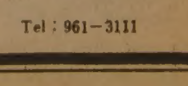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 W. Tor. Tel : 961-3111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범스테드, 봉급인상을 요구하는데는 때와 장소가 있는거야"
"그럼, 가장 좋을때가 언제지요?" "없어!"
"좋아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딥니까?"
"아무데도 없어" "최소한 얘기의 범위는 좁혀놓은거야"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스포츠는 총칼없는 戰爭"

한국體育界 元老 李丙義옹 88년올림픽전망

誘致 중요하지만 메달따야

부진한 種目일수록 마스터플랜 시급 / 競技치룬후 施設 選手아파트 活用을

〈88년 서울올림픽유치에 따른 여러가지 충고를 아끼지않는 85세의 李丙義옹.〉

『88년 올림픽이 서울로유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가슴 뿌듯한 감격과 자부심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내 나이85세이니 서울올림픽을 보고 죽을수있을까요』

한국 근대체육사의 증인이라고 할수있는 체육계원로 李丙義옹에게는 체육인이라는 자부심과 자탄이한데 어려있다. 1917년 평양 大成高를 졸업, 普成專門(현高麗大전신)에입학한후 지금까지 한국체육발전에 평생을바친 李丙義옹은 48년 한국이 처음태극마크를 달고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데 산파역구실을 하기도했다.

『올림픽을 연다는것은 檀君이래 가장 큰 役事가 아닌가 봅니다. 우선 올림픽을 유치하여 세계속에 한국을 돋보이게하고 백의민족을 세계 일등국민으로끌어올렸다는것은 85년을 사는동안 나에게 가장큰 기쁨입니다』

승마·스키선수생활을 했고 1919년 3·1운동당시 졸업식도 없이 普專을 졸업한 李옹은 『올림픽을 여는것은 재정과 시설,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위한 조직운영, 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체육진흥등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재정은 국가에서 뒷받침을 하겠지만 시설은 올림픽을 치른후에도 활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이 올림픽을 치른후 효용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가령 선수촌을 지은후 시설을 아파트로 활용할수있는 방안, 외국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경기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머무를수있는 호텔로 활용할수 있도록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메시코가 현재 올림픽 선수촌을 선수전용 호텔로사용하고 있읍니다.

또한 경기장 시설은 외형상 형태만을갖춘 시설이 아니라 자손만대에 물려줄수있는 훌륭한시설이 되어야겠다는겁니다』라고옹은 늙었지만 올림픽에 거는기대는 누구 보다도 크다.

『시설이 올림픽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조직운영은 화장을해서 얼굴을 예쁘게 해주는 역할과같다고 할수있읍니다』 대한체육회 초대사무총장을 지낸 李옹은 조직위원들이 외국의 실례를 연구할수있도록 해외에 파견, 각분과위원회의 조직범위, 업무한계, 위원들간의 상호협조관계등을 철저히 배워야한다고 강조한다.

대한체육회 창립(20년 발족) 추진위원 9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李옹은 당시추진위원중 현재 살아남은사람으로는 白樂濬씨, 李錫賢씨 그리고 자신등 3명밖에 없다고 쓸쓸해했지만 올림픽으로 화제가 옮겨지자 그의 열변은 다시 계속됐다.

『올림픽을 여는것도 중요하지만 메달을 얼마나 따느냐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스포츠는 총칼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와 합리적인 대책이 조화있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 경기종목은 88년을 겨냥하여 연차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종목에서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것을 보면 답답합니다』고노옹은 울분을 터뜨렸다.

그리고 대회를 원만히치르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대회운영위원회를 빨리구성, 선수를 훈련시키듯이 임원들도 훈련을 시켜야한다고 李옹의 노파심은 대단하다.

李옹은 88년 올림픽이 한국스포츠가 세계무대로 점프할수있는 획기적인 도약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체육인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단합해야되고 殺身成人의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고 주장 … 은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전국민의 체육인화 운동』─젊은사람들을스포츠선수화 시키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48년 한국이 런던올림픽 첫出戰 산파역

조선체육회를 창립한후 日帝로부터 무수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조선체육회 간판을 굳게 지켜온 李옹은 『조선체육회와 日本人들이 중심인 조선체육협회와의 합병을 거절하자 당시 日本고등계 형사들이 나에게는 세를 주지못하도록 사가는곳 마다 집주인을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생스러웠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지금은 忠南瑞山郡부석면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있다.

面 노인들을 모아 장마라톤회를 조직, 매일 아침 일찍 조깅을 하는것이 장수하는 비결이자 유일한 취미라는 李옹은 『올림픽을 보는 체육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라고 말했다. 『나도 과연 올림픽을 볼수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나, 노옹의 얼굴에는 황혼의 우수가 짙게 깔려있었다. 【閔炳宅기자】

實業野球 9개팀 再起다짐

우수選手 프로進出 내일부터 冬季훈련에

우수선수들의 프로야구 진출로 존폐의 기로에선 기존 실업야구팀 감독들이 9일대재회의를열고 실업야구 존속을위한 결의를다졌다.

프로로 탈바꿈한 롯데를제외한 기존실업9개팀 감독들은 이날 야구협회이사진과앞으로의 진로를협의,'82년 춘계, 추계, 하계절 3시 … 개 리그전을 갖도록 합의하고 11일께부터 일제히 동계훈련에 들어가기로했다. 군팀인 星武와 綿紡, 그리고 韓國化粧品은 이미 동계훈련에 돌입했으며, 韓電은 15일부터 훈련에들어간다. 農協만은 월말까지 훈련을보류하고있다.

실업팀 감독들은 이자리에서 대한야구협회장 또는 대한체육회장을 통해 팀소속 기업장들에게 아마야구의 根幹인 실업야구팀 존속에 협조를 요청키로했다.

유럽排球 프로化단계 進入

不毛地 2년사이 人氣종목으로 성장

體力바탕 정교한技術익혀 國際대회 活潑… 上位 입상

선수·指導者스카웃…高額보너스도

◇西獨여자대표팀의 폴란드출신 감독 안지·님직⑥. 안지는 西獨배구협회코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한 朴大熙감독으로부터 대표팀 감독직을 전해받았다.

【파리=金仁奎특파원·延着】 유럽지역국가들이 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이라면 한국등 아시아지역에서 볼때 배구 불모지대라는 인상이 짙었다. 그러나 최근 2년전부터 실내스포츠로서는 핸드볼 다음으로 인기종목으로 급성장하고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멀지않은 장래에 배구는 실내스포츠로서 최고의 인기종목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많다. 유럽배구가 이만큼 성장한 이면에는 한국이 기여한바가 크다. 한국은 10여년전에 西獨 여자배구대표팀 감독으로 초빙돼간 朴大熙씨의 인연으로 해서 거의 매년 西獨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에서 친선및 시범경기를 벌여왔다.

西歐人들은 배구를 단조로운 실내스포츠로 알아오다 정교한 콤비네이션을 바탕으로한 한국의 기술배구를 보고 배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졌다.

평소 한산하던 배구경기장도 한국팀이 경기에참가하면 관중들이 체육관을 메우고있다.

또한 한국은 77년부터 北歐의 네덜란드에도 한국배구의 진수를 선보였다. 72년부터 아펠도른서 벌어졌던 디나모국제배구대회에 한국의 現代여자팀이 77년 처음 진출한 이래 道路公社·美都波등 여자단일팀이, 79년에는 남자대표팀이 대회에 참가, 월등한 기술을 선보이며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했다. 이제 유럽서는 월등한 체력과 힘을 바탕으로 한국식 속공을 배워 오히려 한국배구를 앞지르는 단계에 있다.

지난해 12월 西獨 함부르크에서 벌어진 4개국 남자국제대회에서 한국대표팀은 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누구도 예상못했던 결과였다.

프랑스는 2년전만 해도 한국의 고교수준 정도였으나 불과 2년 사이에 이만큼 급성장을 한 것이다.

디나모대회에서 한국은 남녀대표팀이 모두 우승은 했으나 매 경기마다 진땀을 흘렸다. 남자부 결승서 한국은 홈팀 네덜란드에 3－0으로 이기긴 했으나 제2세트 한때 8－13으로 뒤지는 핀치에 몰리기도 했다. 만일 이 세트를 넘기지 못했더라면 승패는 어떻게 됐을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네덜란드 대표팀은 지난해 9월 불가리아 소피아서 열렸던 유럽선수권서 12팀이 겨루는 본선에조차도 진출하지 못했던 팀이고보면 유럽배구와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여자대표팀도 준결승서 헝가리 단일팀에 첫세트를 2점차로 가까스로 이겼다. 헝가리는 전통적으로 배구강호인 東歐권팀이긴하나 대표팀이 아닌 단일팀이 이같은 전력이고 보면 유럽 여자배구의 성장속도도 예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또한 각국 대표팀과 클럽팀서는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들을 다투어 스카웃, 수준향상에 열을 올린다. 디나모대회에 출전한 헝가리의 통스팀은 蘇聯에서 21년간이나 대표팀을 지도했던 가비아 흐베야니를, 감독으로, 西獨은 폴란드의 안지·님직 감독을 여자대표팀 사령탑으로 유치해왔다.

代表선수5명派遣 大阪여자마라톤에

육상경기연맹은 오는27일 개최되는 82년도 오오사까여자풀코스 마라톤대회에 5명(임원2·선수3)의 대표선수단을 파견키로 했다.

◇선수단명단

▲감독겸코치=李暻煥 ▲선수=林殷珠(產業基地) 崔敬子(造幣公社) 李美玉(忠南古德中) ▲조사연구원=鄭鎭澤(古德中교사)

陸上선수2~3명 海外留學시키기로

육상경기연맹은 8일 8백m와 1천5백m인 여자중거리의 유망주 林順男(忠州女高3년)과 남고5천m의 朴明培(春川農高2년)를 美國캘리포니아의 유진대학과 엘도라도고등학교에 오는 9월의 신학기까지 유학시키기로 결정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男子농구 代表코치 李炳國씨 起用

대한농구협회는 金仁健감독, 朴瀚코치의 사퇴로 공석중이던 남자농구대표 코치에 李炳國씨를 9일 기용했다. 李炳國코치는 작년 12월열린 종합농구선수권대회서 복지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한편 농구협회는 대표팀감독은 추후 선임, 泰陵선수촌에 입촌시킬 예정이다.

黃男淑·朴末紛 탈락

英오픈卓球 蘇·中共에져 準決진출 좌절

金琦澤·金浣도 美·中共에憤敗

【크롤리(英國)8日AP=聯合】 제54회 英國오픈 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韓國대표팀의 黃男淑 朴末紛은 8일 여자단식준준결승전에서 蘇聯·中共선수에게 패해 준결승진출의 문턱에서 물러났다.

또한 같은날 남자단식 4회전 경기에서 남자팀의 金琦澤·金浣은 中共과 美國선수에 져 탈락했다.

전날 3회전 경기에서 체코선수를 물리치고 4차전인 준준결승에 진출한 黃男淑은 이날 蘇聯의 베라·포포바선수를맞아 풀세트 접전을벌였으나 2－3으로 아깝게패했으며 朴末紛도 中共의 陳潔玲에게 0－3으로 완패하고 말았다.

앞서 3회전에 진출한 白良美선수는 네덜란드 선수에게 1－3으로 패했다.

한편 3차전까지 강호들을 물리치고 남자단식 4회전에 진출, 기대를 모았던 金浣은 中共의江加良과 열띤 접전을 벌였으나 1－3으로져 탈락했다.

또 4회전에서 金琦澤도 美國의 에릭·보건 선수에게 1－3으로 패했다.

앞서 3회전에 진출했던 盧潤寬도 체코선수에게 1－3으로 패배했다.

◇제2일 전적

▲여단식 준준결승

포포바(소련) 3 21 19 21 21 16 / 10 21 11 13 21 2 黃男淑

陳潔玲(중공) 3 21 21 21 / 10 10 10 0 朴末紛

▲남단식 4회전

江加良(중공) 3 21 21 13 21 / 10 11 21 18 1 金浣

보건(미국) 3 21 21 21 18 / 16 12 13 21 1 金琦澤

관스키(체코) 3 21 21 21 17 / 17 18 14 21 1 盧潤寬

배구代表金潤虎 成大서납치

밤列車로내려가다 天安驛서

慶北體高 졸업예정자인 국가대표 남자배구선수 金潤虎가 7일밤 열차에서 납치당해 스카우트를 둘러싼 불상사 1호를 기록했다.

金潤虎는 이날밤 10시20분께 유럽전지훈련을마치고 귀국, 慶北體高 劉同甲교사·부친金永浩씨등과 함께 열차편으로 大邱로 내려가던 도중, 天安에서 成均館大·배구선수들에의해 납치당했다.

195㎝의 키에 거포로 올해 고교졸업배구선수중 李鍾敬(慶北師大附高)에 이어 랭킹2위로 꼽히는 金은 그간 成均館大와 西江大등으로부터 스카우트제의를 받아오다 이날 납치당한것.

이러한 납치사건에대해 배구협회는 『대학배구가 활기를 띠는것은 바람직하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납치는용서될수 없다. 곧 상벌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밝힌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드라머『댈라스』도

골든·글러브賞候補作등지명

映畵 랙타임·레즈·黃金연못

올해 오스카賞의 향방을 암시해주는 골든·글러브賞 수상후보작및 후보자가 8일 지명되었다.

영화 부문은 『랙타임』과 『레즈』가 7개부문의 『황금연못』은 6개부문의 후보지명을 획득했다.

TV드라마에서는 에미賞 수상작인 NBC의 『힐스트리트·블루즈』와 CBS의 『댈라스』 『루 그랜트』, ABC의 『디나스티』 『수사 … 』(부부탐정)이 선부문에서 지명을받았다.

오는30일 美國전역에 TV방송으로 중계될 제39회 골든·글러브賞 후보로 지명된 작품및 사람들은 다음과같다.

▲극영화=『프랑스 중위의여인』 『황금연못』 『프린스 오브 더 시티』 『랙타임』 『레즈』

▲코미디 및 뮤지컬=『아더』 『4계절』 『하늘이 내려준 행운』 『S·O·B』 『주트·주이트』

▲여배우(극영화)=샐리·필드(원한은 없다) 캐더린·햅번(황금연못) 다이앤·키튼(레즈) 시시·스파첵(초라한 사나이) 메릴·스트립(프랑스중위의부인)

▲남배우(극영화)=워런·비티(레즈) 헨리·폰더(황금연못) 티모시·허튼(넥스) 버트·랭커스터(아틀랜틱시티) 트리트·윌리엄즈(프린스 오브 더 시티)

▲감독=워런·비티(레즈) 밀로스·포먼(랙타임) 시드니·루멧(프린스 오브 더 시티) 루이스·말르(아틀랜틱 시티) 마크·라이델(황금연못) 스티븐·스필버그(잃어버린 방주의 특공대)

▲주제가=『끝없는사랑』(이상 아더) 『당신의눈만을위해』 『당신을 사랑하는것은 내 작곳』(버터플라이) 『한시간만 더』(랙타임) 【AP】

流星의 賦

<27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⑩

여심(女心)에 고금이 없는 것일까. 연정(戀情)엔 원래 국경이 없는 것이다. 흠계남은 오꼬이의 노래를 마저 듣고, 그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을 마음에 새겨 넣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동안 응시하다가 일어섰다.

『왜 일어나십니까』

히라또가 놀라며 계남의 손을 잡았다.

『밤에 숙사를 비우면 모두들 걱정할 것이외다』

『그 문제 같으면 소인이 적절히 처리하겠소이다. 흥공께서는 모처럼의 청야(淸夜)를 이 가모가와에서 지나시면 어떻겠소』

하는 히라또의 간곡한 만류였다.

『그건 안됩니다』

『그렇다면 수각(數刻)이라도 더 머무시면』 하고 오꼬이도 기어드는 소릴 했다.

『내겐 이때까지의 환대만 해도 고맙기 짝이 없소. 내 남자의 미성(美聲)과 미자(美姿)를 잊지 않으리다. 비록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를망정 어찌 인정에 변함이 있으리까』

계남이 그들의 간절한 만류를 물리치고 이층에서 내려 바깥으로 나왔다.

마음의 탓인지 배웅하는 오꼬이의 어깨가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그집에서 멀어진 다음, 뒤쫓아 온 히라또에게 계남이 『전세의 여자를 만나게해 준 귀하의 호의는 감사하나, 나는 지중한 소임을 맡아 이곳에 와 있는 사신의 신분이오. 앞으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소』 하고 준절하게 일렀다.

『사신(使臣)으로서의 소임도 막중하려니와, 미녀와 더불어 정을 나눠 보는 것도 인생으로선 다시 없는 흥취가 아니겠소이까』

그리고 히라또가 하은 말이 괴상했다.

『따지고 보면 인간에겐 정애(情愛)가 제일이오. 충정은 제이의 문제가 아니리까』

계남이 왠지 반발을 느꼈다.

『히라또씨, 나는 일본 사람이 충정을 다하기 위해선 생명을 홍모처럼 가볍게 생각한다고 들었소. 그런데 귀하가 방금하는 말을 들으니 어처구니가없소. 당신 나라 사람들에겐 충정을 권하고 내겐 그런 말 밖엔 못하겠단 말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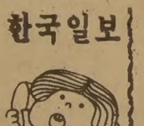
『아니옵니다』

하고 히라또가 말했다.

『충정을 다하기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명분(名分)을 그렇게 내 세우고있는데 불과합니다. 우리 일본인의 동태를 예의 살펴보십시오. 만사에 이(利)가 앞서 있읍니다. 재후들이 무슨 까닭으로 수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를 아십니까? 그렇게하는 것이 이롭기 때문입니다. 주군(主君)의 여자와 밀통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똑똑한 척하는 무리들이 입으론 무슨 소릴 지껄여도 그 내심엔 미녀(美女)와 재산, 그리고 권세를 탐하는 욕심으로 가득해 있읍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자는 바보지요. 천치지요』

계남은 열을 올리고 지껄이고 있는 히라또의 옆얼굴을 달빛 아래로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일본의 이른바 전국시대(戰國時代)라는 것은 총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정실에 비롯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AUDI
CATCH A RABBIT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THE KOREA TIMES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웨이츄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 TOR. (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 토요학교버스(VAN)운전하실분 구함
토론토서부지역, PAY : 1회 $30
씨알한국인학교☎ : 441-2986 960-0074

• 입주하셔서 2월 한달간 2개월된 아기 돌보아 주실분
☎ : 446-1346

✲ Cook Wanted ✲
KOREAN VILLAGE RESTAURANT
628 BLOOR ST. ☎ : 536-0290

* 성실하고 신체건강한 운전면허 소지자 남자분
* 주6 일(WAGE : $350)
직접내방 바람. 고려식품

• 가게봐주실분 구함.
• 6412 YONGE ST.
☎ : 221-6544 Mr. 안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다벤포드×오크우드지역)
☎ : R)960-0761, B)656-3020

일주일에 두번(월. 금)집안청소 해주실 약간의 영어를 필요로 하고 성실하고 믿을수 있는분을 원함.
☎ : 445-7745(Mrs. SHOWN 외국인)

스토아 안에있는 POST OFFICE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 : 923-1206

캐나다의 유명한 도난방지기 회사에서 딜러쉽 이나 세일즈에 관심있는분 연락요망. (영어, 한국말 가능한자)
☎ : 661-3722(Mrs. LEE)

매매및 양도

• 이사관계로 급매(미시사가지역) 주5일 오픈
년매상 : $200,000 우유제품 제외
• 아스킹 : $30,000+스탁+설비.
☎ : 1-877-0634
(월. 화. 수. 토 오후7시이후 전화)
(목. 금. 일 오후9시이후 전화) ASK for JOE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매 매
• 토론토, 해밀톤, 오사와등 외각지역의 가게들
• 매니저 또는 후랜차이스 매니저 구함.
☎ : 652-5817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머신 $800, 렌트 $550
☎ : 1-387-3983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높은이익 보장합니다.
928 DENFORTH. ☎ : 466-3423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동수 태권도장(사범 박동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부로 앞

집·방세·하숙

[illegible] (MONTHLY)
PAPE SUBWAY에서 한 블럭 거리
☎ : 282-0236, 929-5531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3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 741-7829(김조자)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시설및 수리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집, 가게, 공장) 김부원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식 품 점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 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 합니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동

양 장 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셀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8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622, 255-8301 (R)252-3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B)651-9324 (R) 226-5430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이학, 김한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사 진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한국일보 안내광고난을 이용하세요.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 생화, 조화, PLANTS, GIFT 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웅)

청 솔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 [illegible]
#207, TOR.
☎ : 960-5736(B), 844-0178(R)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이 영 철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8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기 타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번역 CHARLES YU(유좌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illegible]

2ND CLASS MAIL [illegible] DEAR MAIL 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